



www.maggun.com

2018.02 vol.83

#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from **1987**  
to **2018**

- 강성옥 군산시의원
- (사)아리울역사문화 문정현 대표
- 영화 [기생, 꽃의 고백] 시사회
- 이야기가 있는 소설 탁류길
- 군산대교수 김항석의 이집트여행 이야기
- 박재만 전북도의원
- 하림교회 고일곤 목사
- 만주기행 주은래, 등영초 부부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이만호 운영위원
- 스페니쉬레스토랑 몬주익213





GO TO THE  
KUNSAN

# Now

##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같이 나는 70년,  
가치 더할 100년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교육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전국 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www.maggun.com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일제 잔재가 축제 대상인가

언제부터가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이런 저런 축제가 우후죽순 격으로 열리고 있으며 그 수는 어림잡아 천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 중에는 짜임새 있는 기획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축제도 있는 반면에 증빙도 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나 별 내용도 없는 축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재정을 축내고 결국 유아무아됨으로써 지탄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군산의 대표적 축제로 치러지는 근대시간여행축제는 어떤가. 여기서 근대가 함축하는 콘텐츠는 일제가 남긴 사회간접자본과 건축물 등을 일컫는 듯하다. 그러한 시설들은 두 말 할 것 없이 일제가 조선인을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성한 것들로서 군산항은 일본으로 싣고 가기 위한 대표적 쌀 반출 통로였다. 그러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제의 잔재가 많은 게 사실이다. 1919년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도 군산이고 농민항쟁이 일어난 곳도 군산이다. 일제는 36년간의 식민통치를 통해 수많은 주민을 수탈했고 억압하고 죽였다. 따라서 그들이 놓고 떠난 잔재는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실움과 눈물이 배어 있으며 두고두고 후대의 교훈으로 삼는 게 마땅한 이치일 것이다. 그런데 그 잔재를 가지고 축제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행사로서 잔치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일제 잔재를 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축제라는 단어를 떼어내고 그냥 '근대 시간여행'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깊고 정체성에도 맞지 않나 한다. 굳이 축제를 하겠다면 새만금을 품고 있는 군산만의 강점을 살려 전국 연날리기대회 같은 것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한다. 수천, 수만의 연을 띄우기 위한 광활한 땅과 바람이 있는 새만금은 국내 어느 지역에도 없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회가 성공하여 나아가 세계 연날리기대회로까지 발전한다면 세계 각국의 온갖 민족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형형색색의 연들을 가지고 참가할 터이고, 그 연들이 새만금의 바람에 실려 창공을 뒤덮는 광경, 얼마나 장관이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http://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mailto: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jay0810@hanmail.net](mailto:jay0810@hanmail.net) Fax\_ 063) 911-1856

맥군 후원 업체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영화통닭\_ 후라이드치킨 테이크아웃 / 063-445-6274  
무라야마\_ 식사권 / 063-442-0488  
노가리&비어 (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곱창이최고예요 (수송점)\_ 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도마 (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소설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홍차와 국화\_ 커피 음료권 / 063-446-0616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     |     |     |     |     |
|-----|-----|-----|-----|-----|
| 유수진 | 최선덕 | 김철환 | 김장환 | 양지은 |
| 고은경 | 김선영 | 윤고은 | 이승은 | 박중연 |
| 오경아 | 박재현 | 임연석 | 심호승 | 이연혜 |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고우당커피숍 (월명동) 063-443-1042
- 군산CC (옥서면) 063-472-3355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063-443-8283
-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063-462-2241
- 기업은행 (나운동) 063-467-6752
- 던킨도너츠 (중앙로) 063-443-7887
- 동군산병원 (경장동) 063-440-0300
- 미다원 (영화동) 063-462-2132
- 산타로사 (은파유원지) 063-462-9062
- 신포우리만두 (장미동) 063-445-0389
- 아리울 웨딩 (조촌동) 063-453-3200
- 오죽일식 (나운동) 063-464-5625
- 좋은사람좋은치과 (수송동) 063-466-2875
- 파라디소페르두또 (은파유원지) 063-471-8525
- 한길문고 (나운동) 063-463-3109
- 호남공인중개사 (중앙로) 063-445-1212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 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http://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 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 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mailto:jay0810@hanmail.net)



Vol. 83 | 2018.02



|           |     |                                                                |
|-----------|-----|----------------------------------------------------------------|
| 발행인·편집장   | 이진우 | <a href="mailto:jay0810@hanmail.net">jay0810@hanmail.net</a>   |
| 디 자 인     | 박유경 | <a href="mailto:282pyk@hanmail.net">282pyk@hanmail.net</a>     |
|           | 이경호 | <a href="mailto:kyungho159@naver.com">kyungho159@naver.com</a> |
| 주 간       | 오성렬 | <a href="mailto:poi3275@naver.com">poi3275@naver.com</a>       |
| 시 민 기 자   | 조종안 | <a href="mailto:chongani@hanmail.net">chongani@hanmail.net</a> |
| 상 임 고 문   | 이희찬 | <a href="mailto:lhc-good@hanmail.net">lhc-good@hanmail.net</a> |
| 시 민 기 자   | 배지영 | <a href="mailto:okbjy@hanmail.net">okbjy@hanmail.net</a>       |
| 시 민 기 자   | 이생곤 | <a href="mailto:grandlee@kmni.co.kr">grandlee@kmni.co.kr</a>   |
| 시 민 기 자   | 심권택 | <a href="mailto:sys2091@daum.net">sys2091@daum.net</a>         |
| 컬 럼 니 스 트 | 온승조 | <a href="mailto:gsforum@hanmail.net">gsforum@hanmail.net</a>   |
| 컬 럼 니 스 트 | 이영진 | <a href="mailto:younggeen2@naver.com">younggeen2@naver.com</a> |

제작 \_ ICM (063)445-1856  
주소 \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 \_ 467-2011-000002  
인쇄 \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http://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집지윤리위원회의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 \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 오식도

엄동설한

내린 눈 속에

다시 피울 날을 기다리는

썩들이 움츠리고 있어요.

쌓인 눈 무겁게 짓눌려

감당하기 힘든 날

한 줄기 따뜻한 바람 불어옵니다.

가동 멈춘 지 오래 된

공장 건물 옆

하얀 눈 사이로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네요.



엄동설한 얼어붙은  
군산 산업단지 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오길 기원합니다.

최 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군산시장 출마하는  
강성욱 군산시의원

from 1987  
to 2018

지켰습니다!

민주주의, 민주당, 군산시,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켰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  
작은 도시에 살아간다고  
패배의식을  
안 갖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군산 명산동 네거리, 햇살은 따가웠다. 피부에 끈적 끈적하게 달라붙는 무더위는 아니었다.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졌다. 1987년 6월이었다. 버스 정류장과 상가는 어느 때와 같았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제 갈 길을 갔다. 그날이 첫 데이트라도 되는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옛된 얼굴의 젊은이들은 시간을 자주 확인했다. 그때 들려오는 구호소리.

“호헌철폐! 독재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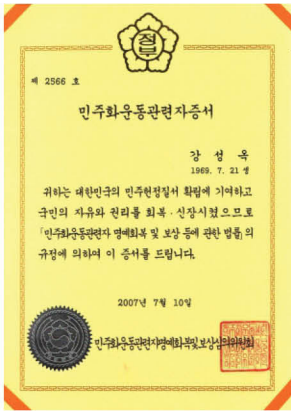
집어등에 몰려드는 물고기처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명산동 네거리로 뛰어들었다.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명산동 시장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스무 살 청년 강성욱씨도 거리를 점거한 대열에 합류했다. 아침마다 아버지가 그에게 한 당부, “시내 나가지 마라. 시끄러운 데에 끼지 마라”는 잊어버렸다.

그해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학생이 사망했다. 치안본부는 책상을 탁 치니 박종철 학생이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중앙대병원 오연상 전문의는 물고문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황적준 부검담당의는 고문이 있었음을 밝혔다. 숨죽여 있던 시민들의 항의 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졌다. 천지를 뒤흔들 수도 있었다.

대통령 전두환은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호헌은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무슨 법? 당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선출방식은 간선제.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장충체육관에서 몇몇의 손으로 뽑혀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간선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가 열렸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사망했다는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안기부, 법무부, 청와대 비서실 등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은 시골사람들까지도 알게 됐다. 군산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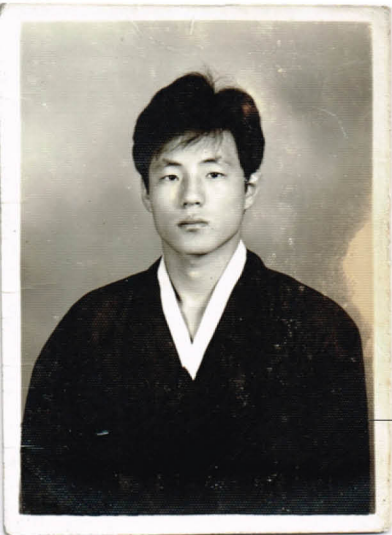
6월 9일에는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졌다. 시위는 햇불이 되어 전국에 불을 밝혔다. 벵타이를 맨 회사원들도,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학생들도, 아주머니들도, 어르신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6월 항쟁’이었다. 군산 사람들 마음도 뜨겁게 타올랐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었다.



민주화운동증서



학생운동



학생운동

강성욱씨는 다시 학교에 복학했다. 16년 만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학사모를 썼다. 나라에서는 ‘민주화운동 공로자’라고 인정까지 해주었다. 차디찬 바닥에서 자고 뜨거운 거리에서 20대를 보내고 맞은 30대. 김대중 대통령 때에 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이 생겼다. 16년 만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학사모를 썼다. 나라에서는 ‘민주화운동 공로자’라고 인정까지 해주었다.

“처음에는 시위 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됐어요. 우리는 오룡동 성당에 모여서 출발했어요. 경찰들이 막으니까 시청까지 전진을 못 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일매일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경찰을 완전히 밀어내고 시청 앞까지 갔어요. 해방구가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군산대 미대 1학년이었어요. 어릴 때에 만화 따라서 그리다가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요. 군데 강의실에는 자주 못 갔어요.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연어냈잖아요. 허무하게도 1987년 12월 대선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예술가하고 멀어졌어요. 학생회관하고 거리에서만 있었어요.”

1990년 1월, 강성욱씨가 대학 4학년으로 올라가는 해였다. 민정당(당시 여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국이 ‘3당 합당’을 했다. 여소야대에서 벗어난 노태우 정권은 노골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했다. 전라도 사람들과 평민당은 섬처럼 고립되었다. 어떤 이는 그때를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던 시기라고 했다. 호남인과 비호남인으로.

당시에 3당 합당을 반대했던 노무현 의원. 국회에서 “반대토론 해야 합니다!”라고 비장하게 손을 치켜들고 발언했다. 전국 곳곳의 사람들이 3당 합당 반대 시위를 벌였다. 강성욱씨는 군산대학교와 군산 시청 앞에서 3당 합당 시위를 주도했다. 국민이 만들어준 당을 버리고, 군부독재의 당에 붙는 정치인들에게 저항했다.

강성욱씨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죄목은 3당 합당 반대 시위. 감옥으로 끌려갔다. 교도소는 복도가 길었다. 방은 한쪽 방향으로만 만들어져 있었다. 복도 끝에서부터 징벌방이 10개쯤 있고, 독방이 몇 개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럿이 지내는 혼방방이었다. 감옥에서 가장 그리운 건 자유. 강성욱씨는 하루에 한 번 주어지는 운동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재판 받으러 갈 때는 수갑 차고 포승줄로도 묶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눈을 안 마주쳤어요. ‘민정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죠.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해요. (웃음) 그래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3당 합당은 야합이라는 내용의 최후 진술을 써서 암기했어요. 인터넷이 없던 때라서 자료 준비는 많이 못 했죠. 유시민 작가의 항소이유서처럼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못 썼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강성욱씨는 ‘안기부 학원 사찰 반대’로 다시 5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제적당한 학교 안에서만 생활했다. 추석이나 설이 되면, 학교는 텅 비었다. 소리를 질러도 도와주러 올 학생들이 없다. 수배자들이 잡혀가기 딱 좋은 때였다. 그래서 가까운 익산이나 광주, 때로는 더 먼 도시로 피신했다. 집을 빌려준 사람들은 선배의, 친구의, 후배의, 고향 친구였다. 모르는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준 셈이었다.

차디찬 바닥에서 자고 뜨거운 거리에서 20대를 보내고 맞은 30대. 김대중 대통령 때에 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이 생겼다. 강성욱씨는 다시 학교에 복학했다. 16년 만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학사모를 썼다. 나라에서는 ‘민주화운동 공로자’라고 인정까지 해주었다. 군산 교도소를 오가며 수 없이 흘린 어머니의 눈물을 뒤통에 닦아드릴 수 있었다.

2016년, 중년의 강성욱씨는 다시 거리와 광장으로 나갔다. 군사독재만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했다. 오래 전에 그가 스무 살이었을 때처럼, 사람들이 밝힌 희망은 전국 곳곳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촛불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으로 버텼다. 부패한 권력을 탄핵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의롭게 맞서지 못 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준 큰 힘을 쓸 줄 몰랐다.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당이 되어갔다. 호남에서는 5·18과 6월 항쟁의 정신을 새기지 않는 정치인도 민주당의 옷을 입고 당선되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은 점점 찾기 힘들었다. 민심은 그런 민주당에 실망했다. 돌아섰다.

2016년 봄, 총선을 앞둔 때였다. 군산시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 만든 '국민의당'으로 갔다. 민주당 군산지역 위원회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래도 강성옥씨는 소신과 지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벌이는 배신행위처럼 보였다.

“제가 처음으로 ‘더불어 콘서트’를 제안했어요. 그 때 민주당에 남은 시의원은 김종숙, 신영자, 김성곤, 강성옥, 이렇게 네 사람뿐이었거든요. 김경구 의원을 복당시켜서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을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김철규 전 도의원님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더불어 콘서트에 김홍걸, 김빈, 정청래, 손혜원, 진선미, 표창원 의원님 등이 와 주셨어요. 거기 오신 많은 시민들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국민의당 예결위원장 선출 후 기자회견 중 왼쪽부터 신영자, 서동완, 김경구, 강성옥, 김종숙, 조경수, 이복

더불어민주당 상설특별위원장 임명장수여식 정춘욱위원장, 추미애대표와 함께



대통령 선거는 군산시의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화위복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과 적폐 세력은 중앙에만, 서울에만 있지 않았다. 군산시에도 존재했다.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따라간 사람들 덕분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민주당이 됐다.

그러나 군산은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 했다. 군산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은 제1당의 지위를 '국민의당'에 내줘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쉽게 통과가 안 됐다. 강성옥씨는 민주당 군산시의회 원내대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설득하는 게 힘들었다. 더구나 지역위원장인 없는 군산시 민주당. 강성옥씨는 민주당 사무국장으로 등직하게 버텼다.

2017년 5월 9일 대선, 강성옥씨는 돌아온 민심을 보고 감격했다. 군산시민의 63%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군산시민들은 정통야당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도를 걸어난 민주당의 노력을 알아봐 주었다. 강성옥씨는 그 험난한 길에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군산시의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화위복이었다. 기득권 세력과 적폐 세력은 중앙에만, 서울에만 있지 않았다. 군산시에도 존재했다.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따라간 사람들 덕분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민주당이 됐다. 2018년 2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 안팎, 전국 1위 정당이다.





# 군산을 지켰습니다

강성옥씨는 평범한 시민.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급식소 봉사도 가끔씩 다녔다. 파를 씻어서 다듬고, 소고기뭇국에 넣을 무를 썰고, 100인분이 넘는 제육볶음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고, 손잡이가 긴 주걱으로 음식이 타지 않게 저었다. 점심 한끼를 먹기 위해서 일찍 오는 사람들. 음식 장만에 정성을 들였다.

“평생 남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날 급식소에서 그랬어요. 유치원 다니던 저희 큰아보다 어린 애기가 얼마랑 만나절을 걸어서 급식소에 왔었어요. 그 애기가 냉면 그릇으로 가득 먹는 밤이 그날 먹는 유일한 한끼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정치를 해서 애들에게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했어요.”

그의 생각은 ‘군산시의 예산을 나누면 굶는 사람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확장되었다. 시의원이 되고는 밥을 나누는 일부터 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군산시의 예산이 돌아가도록 복지에 힘을 썼다. 국가에서 시행하기 전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제안하였다.

강성옥씨는 약자 중의 약자인 발달장애 성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정규과정이 끝나면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여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올해 4월에 개관한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다.

“청소년들과 토론해서 청소년 자치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군산시는 청소년 예산을 책정할 때,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야 해요. 청소년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시 행정에 의견을 낼 수 있죠. 전북대학교 김화수 학생이 찾아와서 같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어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요.”

20-30대가 가장 와보고 싶은 도시로 군산을 뽑은 적도 있다

근대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간여행축제제를 제안해서 군산시의 대표 문화축제를 만들었다

급식소 봉사활동



아동학대관련행사



전통시장 방문



급식소 봉사활동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에서 청소년관련 조례에 관한 토론 중



강성옥 의원이 맡은 일은 의회의 예결산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 장난감도서관, 숲 체험원을 만들었다. 군산시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밥벌이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시민 각자의 삶은 고달프다. 노동시간 이외에 무엇을 하며 자신의 행복을 가꿔야 할까. 강성옥씨는 군산의 새로운 문화를 고민했다. 근대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간여행축제제를 제안해서 군산시의 대표 문화축제로 만들었다. 시민들이 여행 삼아서 가는 구시가 덕분에 20-30대가 가장 와보고 싶은 도시로 군산을 뽑은 적도 있다.

강성옥씨는 경제를, 경제발전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는다. 복지, 문화, 삶의 질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시민들이 좋은 공연이나 작품을 관람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서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도의 수면 위로 띄웠다. 꼭 막힌 군산 경제의 활로를 위해 서라도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군산시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다. 군산시민의 복지는 강성옥씨의 화두였다.



#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켰습니다

“한국 역사상이 아니고 세계 역사상. 당선되는 곳에서 떠난 국회의원은 없어요. 딱 하나 노무현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에서 당시의 노무현 후보가 한 말이다. 노무현은 1990년 3당 합당 때 혼자서 맞서 싸웠다. 그 뒤로는 ‘전라도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했고 낙선했다.

1992년 대선과 1997년 대선. 노무현은 김대중의 편에 섰다. 1992년 대선에 졌을 때, 전라도 하늘이 시커멓다고 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누가 전라도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어떻게 나라를 함께 하자고 하겠냐?’면서 참모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전라도 사람들 때문에 하자. 이게 통합이다”고 말했다. 1997년 대선,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다.

1998년, 노무현은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동서화합을 위해서 ‘부산 북강서 을’의 민주당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 결과는 낙선. 그때부터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으로 불렸다.

그때 30대 초반이던 강성욱씨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01년, 바보 노무현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군소 중의 군소 후보였다. 노무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가능성이 제로일 때, 바보 노무현은 말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서화합 성공하겠습니다. 도와주시요.”

평범한 시민이었던 강성욱씨는 노무현을 응원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찾아갔다. 3당 합당 반대 시위로 감옥에 갔다 온 그는 “김영삼·노태우·김종필이 3당 합당할 때, 반대토론 해야 한다고 맞선 그 철학과 신념에 반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바보 노무현은 무명의 시민인 강성욱씨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줄 때도 예의가 있었다. 그날은 ‘노무현 후보 후원의 날’이었다.

소주 한 잔을 따라줄 때도 예의가 있었다. 그날은 ‘노무현 후보 후원의 날’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002년 16대 대선, 강성욱씨는 ‘노무현과 함께 하는 전북사람들’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전라북도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대통령이 된 바보 노무현. 진보 언론과 지식인들은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만이 고고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을 잘 해도, 한 개만 잘못하면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진보와 보수의 비판과 비난에 시달렸다. 민주당은 쪼개졌다. 호남 사람들도 노무현을 비난하는 한화갑의 당으로 옮겨서 출마했다.

강성욱씨는 노무현을 변함없이 지지했다. 노무현의 이름을 걸고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통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는 시민상주로 군산 분향소를 지켰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명박근혜 시절. 민주당은 가진 힘조차 제대로 쓰지 못 했다. 그리고 다가온 2014년 지방선거. 사람들은 새 정치를 내세운 안철수에게 갔다. 안철수 실행위원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강성욱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2015년 2월에 당대표가 된 문재인 대표를 언론과 정부가 물어뜯어도 끄덕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을 잃고 싶지 않았다.

2017년 5월 9일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를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과 적폐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서 각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강성욱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인이면서 한 사람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항상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고 하죠. 지금은 군산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시장이 세상을 바꾸거나 경제정책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군산이라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는 있어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 작은 도시에 살아간다고 패배자의 의식 안 갖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나라다운 나라’를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과 적폐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서 각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강성옥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인이면서 한 사람의 시민이기 때문에.



##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거름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바다를 유난히 사랑하는 소녀가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기에 그 소녀는 별이 되기로 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 어언 지천명의 나이가 된 그 소녀는 '바랑별'이 되어 그녀의 책 속에 들어와 있다. 바랑별은 바다를 사랑하는 작은 별이라는 뜻으로 저자가 탄생시킨 자신의 캐릭터다. 얼마 전 '바랑별의 군산이야기' 책을 펴낸 (사)아리울역사문화 문정현(文程鉉)대표 이야기다.

문정현 대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만 해도 '아리울역사문화' 대표를 비롯해서 '창의역사'군산지사장, '군산시립도서관 아동독서지도사' 전임강사, 군산대학교평생교육원 '창의역사논술, '역사문화기행'지도사,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말고도 군산시'1930년 시간여행축제'부위원장, 평생학습센터 군산탐험대 강사, 최근 개설한 '바랑별연구소' 대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직함들의 중심에는 '군산 사랑'이 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임피, 중1때 서울로 올라가 서울사대부고와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군산대 대학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를 전공했다. 원래 어려서부터 언변이 좋아 주변에서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판사 꿈을 가진 소녀였다. 하지만 행정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적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과 어울려 노는 게 더 즐거웠다. 졸업 후 어린이집에 취업한 그녀는 결혼과 함께 어린이집을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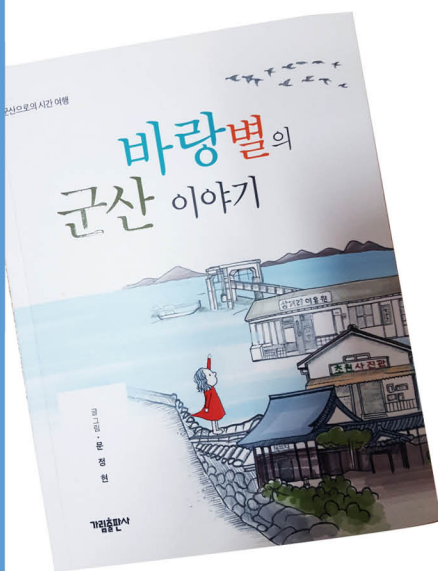
두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독서논술과 역사를 공부, 어린이를 교육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던 중 2007년도 30여년의 서울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인 군산에 내려오게 된다.

군산에 정착한 문 대표의 직함은 '창의역사 군산지사장'이었다. 창의역사는 중등 사회과목 교사인 박미선이 창안한 신개념 역사교육방식으로 수원에 본사를 두고 현장 체험과 스토리텔링으로 역사를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발행하고 있는데 특히 학부모들에게도 인기를 더해 이미 전국 40여 개에 달하는 지사망을 갖추고 있었다. 문 대표는 군산대평생교육원에서 창의역사를 가르치며 군산대 대학원 지역문화콘텐츠학과 1기생으로 입학했다. 지역의 문화역사는 마치 땅속에 묻힌 보석처럼 파고들면 들수록 그녀를 매료케 했다.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자신이 공부한 것들에 창의역사를 접목,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한 군산시립도서관 초기 아동독서지도사를 지원,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아이들 눈술을 지도함으로써 3년에 걸쳐 8기생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서울 거주 당시 마포구청에서의 아동독서지도사 경력의 큰 힘이 됐다.

# 바랑별의 군산이야기 출간한

(사)아리울역사문화  
문정현 대표

글!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어머님을 소개하는 문정현 대표



지난 8년 동안 군산대평생교육원에서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 '창의역사는 술지도사 과정'을 공부하며 4가지 자격도 취득한 그녀는 특히 '군산학'을 공부하면서는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남으로써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다. 그녀는 교육 모토를 크게 3가지로 두었다. '어린이' '인력배출' '군산'이 그것이다. 그녀는 올해 들어 장수군에서 공모한 문화재청 사업 '생생문화재'와 '문화재청 지도자 양성 교육' 등 2건을 수주했다. 언젠가 지역신문에 기고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 철(鐵)을 밝히다'라는 그녀의 기사를 보았다며 장수군청 학예사가 연락해온 것이다. 그녀는 '문화재로 하나 되기' 차원에서 아이언로드(철의 이동로), 최치원루트, 새만금, 조정래의 아리랑을 통해서 본 쌀 수탈, 고군산군도 등을 전라북도 전체의 광역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군산을 중심으로 전북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인력풀의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타국의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그녀는 중국 등의 문화유적지도 돌아봤지만 그것들은 규모는 거대하나 웬지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듯 그녀에게 있어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이 밴 우리의 문화가 주는 깊은 감동과 자긍심은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단다.

#### '바랑별의 군산이야기'

문 대표는 지역문화콘텐츠를 공부하며 다양한 유적지를 답사하고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다.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을 내용이라 할지라도 관련 이야기를 다시 찾아 나서거나 자료를 뒤적여보기도 하며 꼼꼼히 기록했다. 군산에 내려와 거주하면서 새삼 군산의 매력에 빠져든 그녀는 언젠가 이것들을 한데 엮어 우선적으로 동화 형식의 책으로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밴드에서 '일일 글쓰기 코칭'을 보자마자 신청을 했고 전주를 왕래하며 '데미북'과정 공부도 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했다. 처음에는 책 내용의 주제를 50개로 정하고 일기처럼 쓰기 시작했다. 삽화도 본인이 직접 그렸는데 원래 미숙했던 솜씨였지만 데미북 지도를 받으며 시나브로 전문가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50개의 주제가 80개로 늘게 되었다. 5년 전 창설된 '군산역사사랑회'의 탐방을 열심히 좇아 다니며 지역사를 공부한 것도 큰 내공이 되었다고 말한다. 삽화 속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는 저자 자신이다.

지난 1월19일 월명동 근대교육관에서 출판기념회는 많은 관련 인사들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문 대표는 모친과 함께 무대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9순의 고령임에도 딸의 출판기념회에 직접 나오신 모친의 인사말은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바랑별의 군산이야기' 책은 한 달도 안 돼 초판 2천부가 이미 완판 됨으로써 재판 간행을 고려 중이었는데 80개의 이야기 모두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에 핵심을 담았으면서도 간결하게 쓰여 있고 삽화도 일러스트 전공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여서 첫 출간임에도 주변의 호평이 넘친다. 하지만 그녀는 이 책은 자신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역사사랑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만든 책이라며 겸손을 잊지 않는다.



#### 주요 경력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전임강사(2000~현재)  
서울마포 복지창업센터 독서지도사 전임강사(2007~2009)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자원봉사자 현장실습강사(2013)  
군산시 인재양성과 찾아가는 박물관 진행(2013~2014)  
“ ” 평생교육포럼 군산학 강사(2012~2013)  
군산시 관광지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심사위원(2013~2014)  
군산시 관광진흥과 시간여행축제 부위원장(2015~2016)  
군산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진행(2010~2016)  
어린이 군산학 집필(2014), 자유학기제 교재 집필((2016~2017)  
'바랑별의 군산이야기' 집필(가림출판사/2017)

#### 수상 경력

군산시 평생교육공로자부분 시장상 수상(2015)  
전라북도 도지사상(수학여행 활성화 부분/2016)  
전북대상 교육부분 최우수상(2017)

바랑별연구소군산시 나운로43  
현대2차APT.상가 304호  
T. 063)466-4900

저자가 한 편의 시로 쓴  
'군산이 좋은 80가지 이유'

군산이 좋다. 참 좋다.  
어릴 적 뒷산 등구재에 올라 보던  
지평선 가까이 펼쳐지는 아스라한  
들녘이 지금도 있어서 좋다.

엄마 따라 임피역에서 기차를 타고  
확실히 지나가는 전신주, 그 사이로  
빙그르르 도는 들녘의 추억이 좋다.  
군산역에 내리면  
코끝을 훔치던 비릿한 생선 냄새  
해망동에 가면 지금도 풀풀 나서 좋다.

그리 높지 않은 구릉 사이로  
흘러 모여 이루어진 호수,  
간척지에 물 대려고 만든 저수지,  
탁류인 금강 그리고 드넓은 서해,  
군산은 물이 많아서 좋다.

햇빛 쨍쨍한 날에도 오후면 어김없이  
반듯한 길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다.  
월명공원 잡목숲들, 수시탐을 감싸는  
은은한 바다향기도 좋다.

산과 들 어느 곳이나 이야기가 듣고 싶어  
묻고 물으면 주렁주렁 떨어 나오는 감자알처럼  
감칠맛 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군산이 좋다. 참 좋다.





기생, 꽃의 고백 스틸컷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기생, 꽃의 고백> VIP 시사회에 다녀왔다. 직접 출연한 영상물이라서 애착이 갔다. 배역은 권번 출신 기생들의 현재 삶을 추적하는 지역 기자이다. 국악방송국 프로에 나온다고 해서 응했는데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웠다. 시사회에 다녀온 소감을 소개한다. - 기자말

그들은 외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연기(演技), 무용, 악기 연주 등 예술에 대한 식견까지 두루 갖춘 문화 엘리트이자,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서양의 신문물을 누구보다 일찍 받아들인 선구자들이었다. 새로운 춤과 연기, 노래 모두가 당시 대중스타였던 그녀를 뒤흔들었던 것.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 했다.

20세기 초 '모던의 꽃'으로 문화예술계를 주름잡았던 여성 예술가들이 있다. 일제의 회유와 협박, 감시 속에서도 화려하게 피었다가 왜곡된 시선과 무관심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간 기생(妓生)들이다. 그들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하여 '해어화(解語花)'라 불리기도 하였다.

"공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애들 때문에 안돼요. 애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옛날에 기생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알려줘도 이해를 못 해요. 옛날에 할머니가 아무리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녔다고 해도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하죠. 요즘 애들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권번(券番)조차도 뭐 하는 곳이었는지 모르는데요. 모릅니다."

극장을 처음 접한 예술인도 기생이었다. 1902년 협률사가 개관했을 때도 기생들이 처음 무대에 올라 춤을 췄다. 서양의 포크댄스, 소셜댄스, 레뷰춤 등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기생에게 가서 배우라 하였다. 대중 앞에서 가무(歌舞)를 행하는 게 본업이었던 기생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춤을 습득하고, 공연도 했다. 춤뿐 아니라 가요나 영화 제작을 앞두고 제일 먼저 섭외가 들어가는 게 기생이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기생, 꽃의 고백>에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응한 동래권번 출신 할머니들의 하소연이다. 그들은 예술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야 했다. 손자 손녀가 무서웠고, 아들 며느리 눈길이 두려웠고, 세상의 시선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세상은 무관심으로

군산에서 촬영한  
다큐 영화

# 기생 꽃의 고백 시사회 이야기

기생들,  
그들은 왜 자신의  
정체성 감출까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일관하였고, 오랫동안 그들을 잊었다. 아니 외면하고 천시했다.

군산 소화권번 출신으로 국내 유일의 민살풀이(수건 없이 추는 살풀이춤) 전승자인 장금도(91) 명인은 "지금이나 허니께 춤을 예술이라고 하지, 그때는 예술이라고 했간다. 아무리 좋은 춤도 뭔가 풍류를 좀 아는 사람이나 예술이라고 했지... 사람들이 '기생 출신'이라고 천시하던 시절이었으니까.."라며 더는 말을 잊지 못한다.

### 지난했던 기생들의 삶, 영화로 제작

장금도 명인은 이 시대 마지막 '생짜 기생'이다. 그는 2016년 7월 병상의 몸으로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2015.04.30)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0호'로 지정됐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장금도 선생은 현존하는 민살풀이춤의 유일한 계승자이므로 보유자로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정 내역을 밝혔다. 이어 "장금도 선생의 춤은 개인의 삶과 애환을 넘어 역사의 질곡을 담아내는 시대의 몸짓이며 혼이 담긴 예술성이 높은 춤사위"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장금도에게 기생이라는 과거는 숨기고 싶은 꼬리표일 뿐이었다. 왜 세상은 그들을 음지로 숨어둘게 했을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다. <기생, 꽃의 고백>(감독: 홍태선, 임혁)이 그것이다.

<기생, 꽃의 고백>(상영시간 77분)은 한국영상대 산학협력단과 (재)국악방송 공동 투자로 제작됐다. 제작 기간은 2년여. 촬영은 전북 군산, 부산 동래, 일본 동경 등에서 진행했으며, 주연으로 등장하는 장금도 명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감춰지고 왜곡된 기생들의 삶과 이야기를 추적해간다.

카메라는 권번 출신 기생들의 과거와 현재 생활상을 취재하는 지역 언론사 기자와 기생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일본을 찾아가는 학자, 전직 기생으로부터 전통 무용을 전수받고 있는 예술인 등 사회 곳곳에서 한국 기



기생, 꽃의 고백 스틸컷

생문화 유산의 흔적을 찾아가는 문화 추적자들의 발걸음을 따라간다.

기생,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커피와 담배를 즐겼다. 무용, 레뷰를 비롯해 모든 춤과 영화 출연은 그녀들 몫이었다. 1920~1930년대 경성의 문화, 그리고 권번을 중심으로 한 군산의 문화는 기생들로 인해 화려했다. 최승희(월북 무용인) 같은 걸출한 무용가가 춤을 배우러 군산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들의 기예는 출중했다.

홍태선 감독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이 영화는 1920~50년대 활동했던 기생분들 이야기가 주된 소재"라며 "과거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예인으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음지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현실이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를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의 굴레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홍 감독은 "우리 문화사에서 기생을 대중예술인으로 복

권시키고, 아름다웠던 그녀들의 참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 작품을 시작하게 됐다."라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전통문화의 한 자락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일본까지 오가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대중예술인으로 존재했던 그녀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임혁 감독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 아쉬운 점은 주인공이신 장금도 선생님을 모시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 연세가 워낙 많으시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모시지 못했다.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기회가 되면 군산에서 장금도 선생님을 모시고 특별 상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기생, 꽃의 고백>은 오는 25일 서울 시내 주요 상영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고, 어딘가 결기와 한이 느껴지는 그녀들 모습은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의 신비로움을 뽐내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생의 재발견을 예고한다.



신명숙 교수 공연을 마치고(2015)



스승과 제자



# 이야기가 있는 소설 탁류길 (1)

글 | 채명룡(특별기고)  
cmr0118@naver.com

화려했던 기억이여 안녕,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이름도 묘한 꾀보선창이 새롭게 조명된다. 는 소식이 들렸다. 군산시가 2018년부터 뉴딜 사업의 하나로 중앙동과 금암동의 예전 꾀보 선창 주변에 푸른 물결, 초록 물결, 황금 물결로 이름 지어진 3가지 방향의 도시재생 사업을 풀어 놓는다는 것이다.



1916년 군산지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발행  
<동국사 종결스님 제공>-꾀보선창 주변



1930년대 꾀보선창이 그려진 지도



1920년경 꾀보선창 부근의 사진 엽서 <동국사 종결스님 제공>

## 꾀보선창, 그 아련했던 기억을 찾아서

그날의 선창은 늘 분주했다. 생선을 내리고 경매를 불렀던 금암동 동부어판장의 새벽. 그 새벽의 찬란했던 비늘의 향연은 어제의 기억으로 남아 선창 길을 떠돌고 있었다. 초라하다 못해 애절한 빈 선창을 바라보면서 발끝으로 툭 툭 바닥에 잠든 기억을 찾아본다.

햇별은 아직도 내려앉지 않았다. 삼각형 분지처럼 만들어진 주차장에 도착했다. 강가의 아침은 늘 춥다. 하물며 겨울이 깊어가는 1월의 선창은 말해 무얼 하랴. 눈코 시린 건 사람만이 아니다. 건물 외벽, 쓸쓸히 말라 틀어진 샤시 창과 느슨한 계단과 거무튀튀하게 색이 바랜 페인트칠을 보면서 애정결핍의 강도를 잴다.

강 한쪽 귀퉁이가 움푹 파인 모양을 두고 입술이 찌진 것 같아서 '꾀보'라고 불렀다고도 하고, 이 포구에서 객주집을 했던 힘센 사내의 별명이 '꾀보'였는데 이로 인해 '꾀보'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선창이 여기이다.

군산이 낳은 풍자소설가 채만식의 대표작 '탁류'가 담담히 그려내고 있는 선창의 풍경 또한 바로 이 곳이다. 근세사가 살짝 비껴간 이 자리는 긴 세월 동안 동면에 들어갔다.

1920년경 누군가 사진을 찍어 우편엽서로 사용했던 그림엽서

한 장이 전해졌다. 막막한 일제강점기에 사진을 찍고 그걸 엽서로 만들어 보낼 정도라면 예사로운 신분이 아니었을 걸로 짐작이 간다. 언청이처럼 찌졌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지도로만 보면서 그랬겠구나 생각했던 게 사진으로 보니 확실해졌다. 육지가 양 옆으로 쑥 빠져나오고, 물길이 그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간 걸 보면서 '꾀지 긴 꾀졌구나' 하고 깨닫는다.

한 폭의 수묵화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진으로 보는 그 시절, 아련하게 비취지는 한 어부의 일하는 모습에서부터 쌍돛대 높이 달았던 마스트까지 생생하다. 그날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이 포구에는 꾀보라는 이름이 남아 오늘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다.

어부들과 상인들의 가쁜 숨소리와 외침들이 겹겹이 물들어 있는 꾀보 선창길. 길 위의 인생들이 먼 길 떠나버린 이 곳에는 적막감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자동차 소리 요란한 큰 길을 등지고 금강 하구를 바라본다.

오른쪽으로는 예전 수협 제빙공장과 냉동 창고가 있던 하얀색 건물이 떡버티고 섰다. 슬쩍 꺾어져 들어가는 어판장 가는 길에 간판 없는 두부집이 문을 여는지 닫는지 여전히 그 모양으로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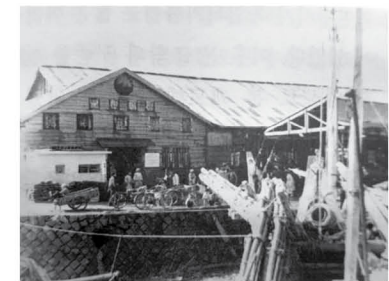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때에는 동빈정 어업판매소가 자리 잡았고, 어업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바뀐 이후 지어졌던 회색빛 동부어판장 건물이 한가롭다. 그 앞은 판매장이었다가 지금은 선박수

리점이고 그 중간에 어울리지 않는 수문 하나, 긴 시간을 외롭게 견디고 있다.

이 수문이 예전 꾀보선창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천이 지하로 바뀌면서 온갖 허드렛물을 흘려보내왔던 내항수문이다.

겨울 아침이라 호젓한 선창 길이다. 이 길에서 필떡이는 생선의 자유와 뱃사람들의 귀향과 악다구니 쓰던 장사치들과 마도로스의 사랑과 애증이 잉태되고 떠나갔을 터이다.

그렇듯, 추억은 그리움이다. 그 아련했던 날들을 기억하며 나는 한가로워서 더욱 애잔한 꾀보선창을 걷는다.



1960년대 금암동 동부어판장의 모습 <군산시수협 제공>



출어를 준비 중인 어선들의 분주한 모습



꾀보선창 아래로 흐르는 복개천의 수문 입구

## 눈 내린 선창의 아침

이 선창에서는 눈이 내려도 좋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색을 눈발에 감추고 있지만 감출수록 안쓰러움은 짙게 배어나왔다. 눈발에 붙은 몇 가닥의 바람에 아스라하게 간직하여 왔던 바지선들의 지난 세월들이 휘영청 밧줄에 매달렸다.

속 터지는 상처를 드러내 놓다 마는 이 선창에서 옛이야기를 내놓는 건 바보짓이다. 나는 암담했던 날들이여 안녕, 하며 돌아섰다.





눈 덮인 꾀보선창의 아침 표정

하는 여름도 좋고, 갯가로 갈기(게)들이 미어터지게 나오는 늦봄도 좋다. 가을엔 몇 줌의 햇살로 한 끼를 때우는 풍요로움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낚시가 빨개질 정도로 추운 날에 선창을 걷는 일이다.

겨울, 눈 오는 날의 선창은 그동안의 수고를 싹 덮어주는 것 같다. 소복하게 덮인 선창 강변으로 난 시멘트 길을 한 발씩 걷는다. 미끌미끌 조심스럽다.

선창 아래로 드러난 옹벽과 돌무더기들을 보면서 긴 시간이 흘렀음을 깨닫는다. 이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다 고개 들어보니 손에 잡힐 듯 흑암 등부표가 서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 곳을 찾아 돌아오는 어선들의 길잡이 노릇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구나. 길을 밝히는 건 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아침이다.

나무판자로 바람을 막고, 생선 비늘같이 날렵하게 뼈대를 세웠던 앙상했던 건물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다. 일제 강점시대의 동빈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선을 잡아 돌아 온 새까만 뱃사람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취해 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모진 풍파를 맞고 싸워 얻은 생선들을 좋은 가격에 거래해주려고 문을 열었던 이 건물은 1990년대 후반 한중 어업 협정 등의 풍파 앞에서 그만 좌초되고 말았다.

선창 골목은 사계절이 다르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지만 서늘한 한기가 살갗을 간지럽게

## 떠나지 못한 갈매기는 텃세로 남고

거칠게 흘러내려온 금강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가의 낮은 건물마다 햇별이 내려앉아 있다. 드문드문 살펴보고 헤집어 보면 아직도 열기 설기 김고 짜 맞춘 건물 틈새로 언뜻 언뜻 일본 식이 눈에 띈다. 식당 옆 천생 안강망 사무장인 정희두씨 사무실도 겉은 환하지만 그만한 시간의 깊이를 가진 듯 낡고 초라하다. 초라한들 어떠fi, 여기선 초라가 대세이니.

언제나 저만치 서 있는 처마와 언덕을 등진 고샅에서는 마른 바람이 작은 회오리로 떠돌고 있었다. 소금기가 배어든 기둥마다 꺾어지고 시든 삶의 흔적들이 애달프다.



뉴딜사업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동부어판장 건물과 선창 수문

시차를 망각한 페인트칠을 보면서 '참 소금기란 게 이렇게 억세구나'하고 깨닫는다. 흰 옷을 겹쳐 입은 모습의 건물과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시간의 흔적들이 슬며시 눈에 들어왔다. 내 삶의 거친 숨소리도 이 바닥에선 숨을 죽여야 했다.

물이 빠진 흑암 등부표는 말라빠진 표정이다. 뿔을 가로지르는 갯 길의 흔적이 물길을 냈고, 그 물길 따라 시나브로 들 물이 차올랐다. 발목까지 깊숙이 박아두고 사방을 둘러보는 녹슨 바지선 위로 올라갔다. 짠 내가 후후 풍기는 한 뼉 기계실 위로 갈매기 맺은 날아다니고, 또 맺은 밀바닥과 닿은 갯벌 곁에서 먹이를 쫓고 있다.

여기에도 색깔 있는 삶들이 두 눈을 번뜩이고 섰다. 게으른 표정인 몇 마리 새들과 서성이는 사람들 사이로 흰 한니 찬바람이 분다. 바닥을 굴러보지만 철제 바지선의 근육질은 건들면 터질듯 팽팽하다. 먼발치로 구름과 구름이 금강하구둑에 걸려 있고, 텅게 맺은 낮선 이들 앞에서 고개를 가웃거리고 있다.

물이 빠지면 맨살을 내놓는 선창은 무심한 얼굴이다. 안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변하지 않았지만 물이 들고 빠지면서서 모두가 제 각각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손톱만큼 남은 햇살의 무리들이 시멘트 길 위에서 기지개를 켜는 늦은 하오의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뒷골목 해성식당에 가서 반지회에 소맥 두어 잔 걸치고, 담 벽에 기대 끄덕 끄덕여도 좋을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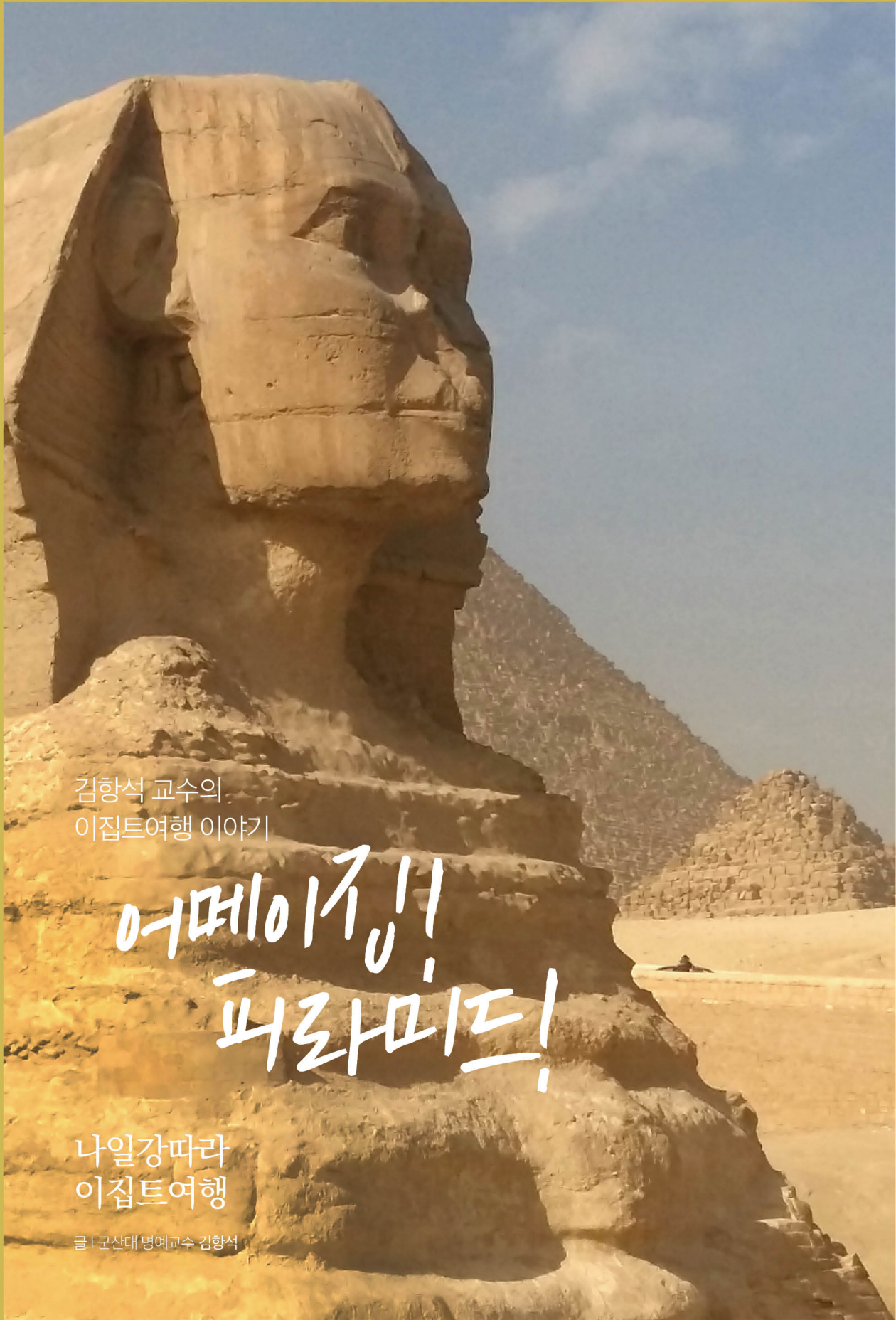
어느 낮선 곳인들 이야기가 없으랴만, 어깨를 늘어뜨린 이 꾀보선창은 떠나보낸 어선들의 슬픔보다 긴 침묵의 비린내가 진하다. 그들은 밤으로 향할수록 항구는 짙긴 인연의 옷을 하나씩 벗어 놓는다. 바람 앞에선 모두가 연인이다. 연인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가.

오늘 나는 낡아서 외롭고 슬픈 금강하구 언저리에서 먼 길 떠나거나 돌아오던 그 인연의 짙긴 밧줄을 붙잡고 서 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항구의 이별 앞에서 우리들의 가슴은 얼마나 애땀던가. 그동안 우린 너무 각을 세워 왔고, 너무 형식적이었으며, 너무 심심했다. <1편 끝>



땃을 내린 바지선 뒤로 흑암 등부표가 보인다





김항석 교수의  
이집트여행 이야기

# 어메이징! 피라미드!

나일강 따라  
이집트여행

글 | 군산대 명예교수 김항석



## 나일강의 유혹

현대와 원시가 공존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도여행이 감탄과 충격의 나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을 여행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문명 발상지”, “세계4대문명 발상지”, “인간이 만든 7대 불가사의의 피라미드”, “죽기 전에 꼭 가야할 여행지” 등, 술한 별명이 붙은 이집트문명을 죽기 전에 꼭 가서 봐야할 것 같았다. 또한 “이집트를 만든 나일강”, “이집트가 나일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이 준 선물”이라는 어느 문명사학가의 평가에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여행을 하고 싶은 유혹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집트여행은 인천에서 이집트 카이로행 직항이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폐쇄되어 아직은 운행이 재개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공항에서 카이로로 가는 코스를 택하였다. 두바이를 출발한 UAE항공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시나이 반도를 지나 약 3시간만에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다. 기다리던 버스에 오르니 검정색 양복의 건장한 사나이가 무장을 하고 버스를 지키고 있었다. 웬일인가 물었더니 아직도 불안정한 치안 때문에 관광객 보호를 위하여 탑승한 관광경찰 (tourist police)이라고 하였다. 조금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이집트를 만들었다는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앙 동부 적도 부근 탄자니아 . 부룬디. 에티오피아의 높은 산과 큰 호수에서 발원하여 빅토리아호로 흘러들어 수단령으로 들어 서서 백나일(White Nile)과 청나일(Blue Nile)이 합류하여 이집트 국경근처에서 인공호수인 나세르(Nasser)호로 흘러든다. 아스완하이댐과 아스완댐을 거쳐 이집트 영내로 들어가 카이로 북쪽에 거대한 삼각주 지대를 만들면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세계최대의 강이다. 그러기에 나일은 단순히 하나의 강 이름이 아니라 현지어로“운하”또는 “강” 자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 기자의 피라미드와 �핑크스

이집트에는 4,000년 이상 된 고대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와 �핑크스”는 이집트문명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Giza)는 나일강 중류의 서안에 위치한 도시다. 수도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약 20km 서남쪽에 있어 카이로 도시권에 포함되지만 행정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쿠푸의 대 피라미드를 비롯해 3대 피라미드와 �핑크스가 있는 유적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계최대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피라미드는 고 왕국의 전성기인 기원전 2,700년경에 만들어 졌으며 기자의 3대 미파미드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은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 한다.

우리가 기자에 도착한 날에는 안개가 약간 끼어있어서 피라미드의 전체모양을 보는데 약간 지장이 있었으나 안개 속의 신비롭게 떠오르는 웅장한 피라미드를 보는 순간, “와! 어메이징 피라미드(Amazing Pyramid)”라고 절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피라미드 주변에도 무장한 이집트 경찰이 지키고 있었으며, 현지인들이 따라다니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권하는데 물론 사진을 찍고 나면 팁을 요구했다.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핑크스는 '코가 날아가 버린 모습'으로 피라미드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핑크스의 생명을 끊고자 터키군대가 코에 집중사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

핑크스는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인 동물로 사람이나 양 또는 매의 머리를 하고 몸통은 사자가 앉아있는 형상이었다.

### 아스완댐과 하이 아스완댐

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고대 이집트의 도시 아스완(Aswan)을 만난다. 해질녘에 카이로 공항을 출발한 이집트 국내 항공은 나일강을 따라 4시간을 비행하여 아스완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역시 이집트답게 교통편이 연결되지 않아 썰렁한 공항주변에서 1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버스로 호텔에 도착하였다. 아스완은 아스완주의 주도이지만 아스완댐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1902년에 영국인이 홍수조절 및 관개용으로 건설한 댐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1971년에 나세르 대통령이 러시아의 기술 원조를 받아 아스완댐 상류 7km지점에 새로이 댐을 건설하였으니 하이 아스완댐이다. 10여년에 걸쳐 이뤄진 하이댐은 당시 세계 최대의 댐으로써 면적 약 5,000㎢, 길이 약 485km의 세계적인 인공호수로 나세르호라 이

름 지어 졌다. 이 댐 건설로 이집트는 수천년 동안 범람하던 나일강의 홍수를 조절하고 강유역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 농업은 물론 수력발전, 관광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엄청난 역사적 구조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댐건설로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유적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 문화유적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드디어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많은 문화유적을 이전하였으니 그중 최대의 공사는 아부심벨신전의 이전이었다.

### 아부심벨 신전을 찾아서

아부심벨신전(Abu Simbel Temple)은 아스완남쪽 약 300 km, 나일강 서쪽 강가로 가는 길가에 있는 사암구릉절벽의 대 암굴 신전이다. 신전을 가기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풀 한포기 보기 힘든 이집트 서부사막을 달리고 달렸으나 신기루 같은 지평선만 보일뿐 온 천지가 사막이다. 3시간여를 달린 끝에 서서히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돌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신전이었다.







아부심벨신전은 정면이 람세스 2세의 모습을 닮은 세 개의 거상으로 만들어진 대신전이다. 1817년에 신전을 덮고 있던 모래자갈이 제거되면서 오랫동안 사막의 모래속에 묻혀있던 대신전의 위용이 드러나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장려한 건축이자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다른 나라의 유산들을 압도하는 람세스2세의 대신전은 1969년 아스완댐의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했을 때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람세스 2세 대 신전을 구하기 위

하여 범세계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1964~66년에 세계 50여 개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고고학자, 기술자 등 3,00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구조팀을 구성하여 해체와 이전 복원하는데 5년이 걸려 원래보다 65m 높은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집트신전이나 유물들에는 매나 뱀, 사람을 닮은 그림 같은 기호를 볼 수 있는데 이 기호들이 바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로 오랫동안 해석을 하지 못하다가 1799년 8월 이집트 로제타마을에서 상형문자와 그리스문자 등 3개의 언어로 새겨진 자그마한 돌비석, 즉 '로제타스톤'이 발견되었는데 프랑스 언어학자 샹폴리 등이 세 언어를 비교해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하여 세계에 알려졌다고 한다.

#### 나일강을 따라 크루즈 여행

세계에서 가장 장려한 건물이자 이집트의 대표적 유적인 람세스3세 대신전 등 아부심벨 신전을 관광한 후 다시 긴 사막 여행을 거쳐 아스완으로 돌아와 나일강을 따라 운행하는 크루즈선에 탑승하였다. 크루즈는 3,000톤급의 아담한 3층 여객선이었다. 크루즈는 밤새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가의 도시들을 평균 4시간정도 운항하고 해당 도시에 정박하여 숙박하고 관광하는 방식이었다.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하여 운항하였으나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 밤



시간에도 운항을 하기도 했다. 크루즈에서 모든 식사는 뷔페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저녁 식사후에는 선상에서 누비앙 댄스, 밸리댄스쇼, 티파티 등으로 분위기를 띄워주곤 하였다. 나일강가의 고지대에 위치한 콥트보신전, 호루스신전 등을 관광하고 선상에서 갈라배야 패션파티에도 참석하였다. 다음날 나일강변을 따라 동서로 자리한 룩소르(Luxor)에 상륙하였다. 룩소르는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1,600년 동안 중왕국과 신왕국의 수도로 고대이집트 도시가운데 가장 크고 발전했던 도시이다. 유적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오늘날 세계최대의 야외박물관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룩소르는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쪽이 신을 위한 공간이고 서쪽은 왕을 위한 장소라고 한다. 동쪽에는 카르나크신전과 람세스2세 석상 그리고 오벨리스크가 있는 룩소르 신전 등이, 서쪽에는 투탕카멘왕을 비롯한 많은 왕이 묻혀있는 왕들의 계곡이 있다.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는 이집트 고왕국 파라오들의 사후세계를 위한 무덤이었고 중왕국 시대에는 왕들의 무덤은 절벽을 깎고 뚫어서 만들었으며 신왕국 시대에는 무덤을 골짜기에 숨겨놓고 대규모 신전을 짓는 형태로 만들어 도굴을 막았다고 한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생에 한번쯤은 가고 싶어지는 인류문화유산의 보고, 고대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여행은 나일강을 따라 크루즈 여행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집트여행에서는 장사꾼들의 조심하라고 수없이 들었고 빠기라고 불리우는 장사꾼들의 호객행위는 상상을 벗어났지만 순박한 모습들이었다. 마주칠 때마다 예외없이 “차이나” “니하오”를 외치며 따라붙을 때는 귀찮기도 하였지만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다. 웅장하고 경이로운 인류문화의 보고들이 보존이 미흡하고 훼손되어 안타까웠으나 이집트(Egypt), 이집션(Egyptian)에 대한 인상은 나쁘지 않았으며, 아마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 군산경제에 봄빛 훈풍이 분다

전라북도의회 광역의원  
박재만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 하늘길과 바닷길을 확장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전후로 군산의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봄빛 훈풍이 불고 있다. 군산공항 제주노선 오전비행기 증편이 확정되어 올 3월부터 운항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카훼리호 항차 증편이 주 3회에서 6회로 한중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재만 도의원이 군산공항 제주노선 증편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군산-석도 카훼리호 항차 증편이 한중해운회담 공식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청와대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늘길과 바닷길의 확장으로 군산의 관광산업 활성화, 물동량 증가로 인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박의원은 “항차증편의 기대효과로 5,969억 원의 경제효과 발생, 일자리 1,142개 창출, 일 평균 500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어 장·단기적으로 군산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에는 항만과, 항만팀 등 전담부서가 없어 군산항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으나 2015년 3월 박의원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도청 항만과 신설 및 항만물류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하였고 항만공항하천과, 항만팀이 신설되었다





### 원칙과 소신

박의원은 군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시민단체 활동과 정당생활을 통하여 군산의 현안 등을 풀어 나가고자 하였고, 페이스북 그룹 '군산사람들의 맑은 이야기'를 만들고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아픔을 함께 하였다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10대 전라북도의회에 입성하였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지역 도의원 3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 하였을 때, 군산의 도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탈당을 선언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지킨 박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탈당을 한다면 이는 민주당은 물론 당을 선택해 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비난한 바 있다.

### 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박재만 의원 지인들은 ‘소탈한 사람’, ‘격의 없는 사람’이라고 박의원을 평가한다. 박의원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박의원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군산을 만드는 게 가야할 길이며 거짓에 고통함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군산시민들에게 오늘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공공형산후조리원 설치’,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단지 조성’등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 단으로 군산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군산시민 전체의 문제이다. 군산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대안으로 새만금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단지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라북도는 밀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의원은 “스마트 단지가 조성된다면 생산효과 10조, 일자리창출 2만개가 예상된다. 군산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사람

전라북도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대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박의원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문재인 후보 전북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을 규합하고 문재인 후보와 전북 각지를 순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정권창출에 기여했을 당시의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변에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박의원은 386세대로서 청와대 참모진과 중앙정부와의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와의 인맥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박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캠퍼스 사역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하림교회 고일곤 목사

글: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그가 학원 사역에 나선지도 어언 30여년, 특히 모교인 군산대에는 교수와 교직원들로 신우회를 결성, 150여명의 대학생들까지 아우른 신앙공동체를 조직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활발한 목회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목사는 신앙적 인격체를 형성함으로써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 그리고 대학의 그릇된 문화들, 예컨대 축제문화라든지 음주문화, 성(性)문화, 커닝문화 등 왜곡된 캠퍼스 문화의 개선에 주력하며 활발히 학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후 서서히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군산대에는 현재 약 2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으로서 계중에는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고 목사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도 열심인데 그래서 현재 7명의 중국 학생들이 하림교회에 적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마다 출신 지역도, 전공도 다르고 박사 과정 중인 학생도 있지만 평생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들은 교회가 비단 복음만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신자들이 많아 외로움이 달래지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심적 안정감을 갖게 됨으로써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도 많다한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하여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21년 전인 1997년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하림교회'의 고일곤(55)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강소(強小)교회에 두고 있다. 교회 건물을 대형화한다거나 하는 허장성세 추구보다는 모습은 작지만 신앙적으로 강한 교회라는 의미일 터다. 실제로 지곡동 소재 하림교회를 방문해서 느낀 것도 단층 건물의 아담하기 그지없는 규모인데 다만 이채로운 것은 전체 신자 100여명 가운데 청장년층이 60%로서 대체로 노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일반적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군산이 고향으로 본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중앙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고 목사는 초등학교 때부터는 개복교회를 다녔는데 중앙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한 뒤 더욱 신앙심이 깊어짐으로써 주변에 전도 사역을 하며 목회자의 꿈을 키워갔다. 군산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잠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 신학대학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신학대 졸업 후 한동안 인천에서 전도사와 부목사 생활을 거친 뒤 1996년도 목사 임직을 받고 이듬해 고향에 내려와 지금의 하림교회를 개척한 그는 구태를 답습하는 획일화된 교회가 아니라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전도에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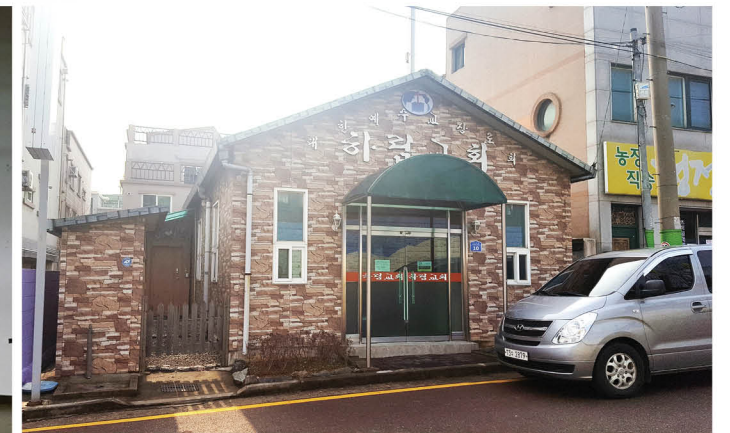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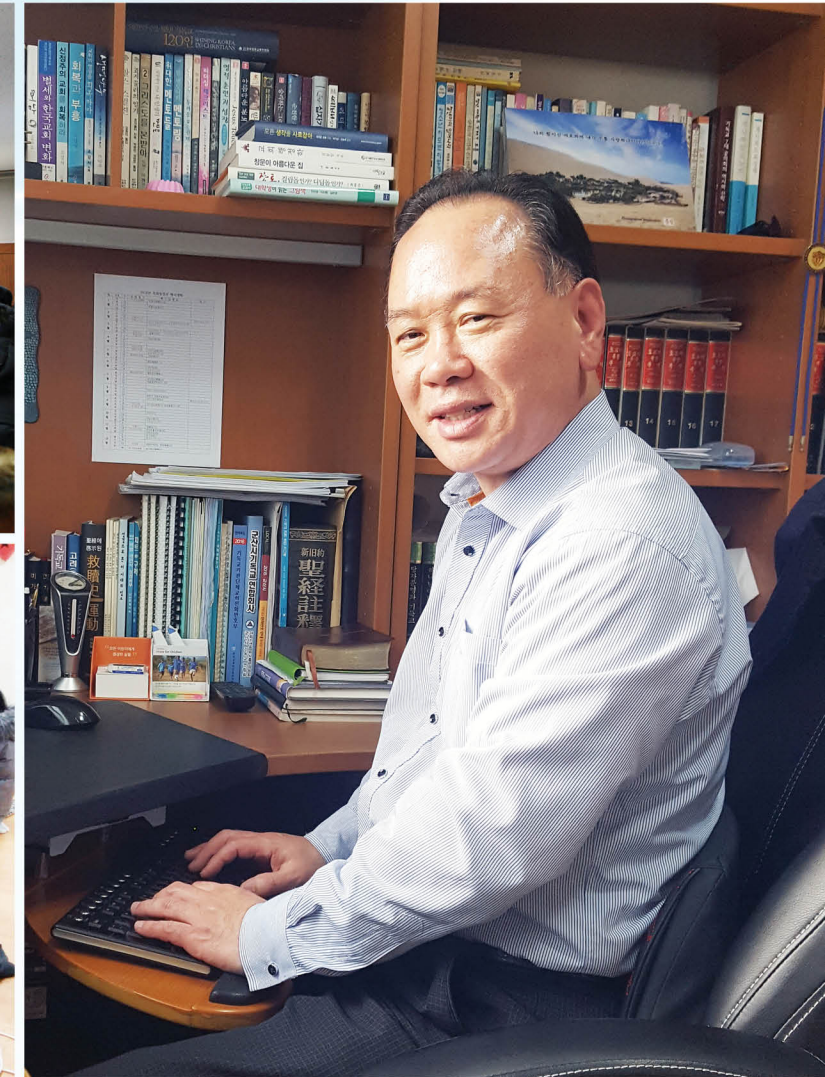


그 학생들에게 고 목사는 신앙을 떠나 마치 부모 같은 존재라 할 만하다. 간혹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치료 주선에서부터 진료 상담을 비롯하여 일상적 어려움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박사 과정 중인 모 여학생은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우울증이 심해져 도중에 학업 포기 갈등을 겪다가 고 목사와의 면담 뒤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껏 밝아진 모습으로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경우인데, 신앙을 가진 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진로가 잘 열린다면서 게 중에는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교회를 수호문해 신앙 생활을 계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새삼 기쁘기 그지없고 더없는 보람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평소 가까이에서 고 목사를 지켜본 이들은 어떤 소회를 기지고 있을까, 군산대 이지현 교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다. “제가 출석하는 하림교회는 소박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담임이신 고일곤 목사님은 부자입니다. 게다가 뻥도 든든한 듯합니다. 매 주일 교회 점심식사는 가정식 백반으로 정성껏 차려지고, 중국 유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밥도 자주 사주십니다. 처가에서 보내왔다는 자연산 전복도 성도들에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는 직장도 적극 소개해 줍니다. 가난한 교회의 부자 목사님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목사님 아니냐고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목사님을 살펴보니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활하기에 그토록 마음이 부유하고 여유로웠던 것입니다.”

이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목사님은 항상 기도 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3)’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고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으로도 더 부자로, 더 뻥이 있는 분으로 오해받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림교회  
군산시 상지곡 1길10  
T. 063)471-0691







## 겨울 '만주기행'에서 만난 주은래·등영초 부부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목단강 외곽에 있는 한적한 마을 풍경

중국 만주 목단강(牡丹江)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과 도시 이름이 같았다. 항일 무장투쟁과 발해 유적지가 인근에 있어 친숙하게 다가왔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1950년대 인기가수 황금심, 이미자가 〈목단강 편지〉를 불러 유행했을 정도로 사연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한 번 읽고 단념하고 두 번 읽고 맹서했소, 목단강 건너가며 보내주신 이 사연을...’으로 시작하는 〈목단강 편지〉 노랫말에도 나오듯 만주 사람들은 불일이 있어 목단강에 갈 때는 ‘간다’라고 하지 않고 ‘건너간다’로 표현한다고 전한다.

목단강은 처음 방문한 도시였다. 도시의 역사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고 이미자가 부른 노래 제목을 기억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럼에도, 철부지 시절 겨울밤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고향동네 아주머니들이 사는 마을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다른 도시 조선족들은 대부분 흩어져 사는데 목단강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도시 서편에 집단을 이루고 산다고. 그래서 단합이 잘 된단다. 자치주도 아닌데 민속거리를 조성해 유지해나간다니 당당하게 보이기에 앞서 경외감이 들었다.

목단강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친딸 김강석(1928~2003) 여사가 살던 도시였다. 김 여사 생모가 해산일이 다가오자 해림에서 칠가툰으로 가던 중 괴한들 곁에 살해되기 직전 산에서 낳았다고 해서 ‘산조(山鳥)’라고 불렀단다.

산에서 태어나 젖동냥을 하면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내다가 1995년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나 친자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친(김좌진)의 묘는 참배하지 못했다고 한다. 실망하고 돌아가 목단강의 작은 아파트 단칸방에서 비참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는 설명은 애처로움을 더했다.

### ‘등영초·주은래’ 부부의 러브스토리

1938년 10월 하순 숙영을 하다 일본군이 기습해오자 유인책으로 부대원들을 피신시키고 강물에 뛰어들어 최후를 장렬하게 마친 항일연합군 소속 여전사(女戰士) 여덟 명. 그들을 기념하는 ‘팔녀투강’ 석조물은 목단강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빈강공원 중앙에 세워져 있었다.

화강암으로 된 기념비는 높이 13미터, 길이 8.8미터로 1988

년에 준공되었다고 한다. 안내인은 기념비를 세우고 받침대에 ‘八女投江’ 휘호를 쓴 등영초(1903~1992)에 대해 설명했다. 등영초는 중국의 초대 총리를 지낸 주은래(1898~1976) 부인이라는 것.

중국 여성 혁명가의 초상으로 일컬어지는 등영초와 주은래 부부의 휴먼 러브스토리는 중국인들의 숭상에도 자주 오르내린다. 등영초는 열다섯 살 때 스물한 살이었던 주은래를 만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장개석과의 끈질긴 악연 때문이었다. 쫓고 쫓기는 가시밭길이 25년 동안 이어졌고, 주은래가 총리에 오를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 등영초는 부인이 넷이었던 모택동처럼 후처를 얻어 대를 이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주은래는 듣지 않았다.

‘내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 평생을 나와 중국을 사랑한 ‘여자’가 매우 슬퍼질 것이다’ 이는 훗날 주은래가 과거를 회상하며 했던 고백이다. 두 사람은 혁명시절에 숨을 거둔 동지 자녀들을 양자로 양육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이봉(李鵬) 총리이다. 도마 안중근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등영초는 도마의 일화를 남편과 함께 가곡으로 꾸며 자신이 직접 안중근 역을 맡기도 했다 한다.



목단강 시가지



중국인 대부분은 주은래보다 모택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나이 든 어른들은 주은래가 없었으면 모택동도 혁명을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며, 아내와 50년을 해로하면서 지극히 사랑하였고, 동지들 자녀를 넷이나 양자로 맞아 훌륭하게 키운 주은래의 인간성을 더 높이 산다고 한다.

모택동은 주은래 총리에 대해 '사리사욕이 없으며, 고상하고 순수한 도덕적인 사람. 인민해방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물고 헐뜯다 못 해 죽이려고 까지 했던 우리 역대 권력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부러움이 앞섰다.

광복(1945년) 후 중국은 '팔녀투강'을 모티브로 <중화의 딸>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여전사들을 찬양하였다. 중국이 건국 33주년(2009년)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신중국 장건 영웅 100인'을 선발했는데 안순복, 이봉선 여전사도 포함되었다.

## ‘비극의 강’이 애뜻한 ‘추억의 강’으로

탁하면서도 서정적인 묵단강은 ‘모란강’으로도 불리며 중국 동북부를 흐르는 송화강(松花江)의 최대 지류이다. 길림성 묵단령(牡丹嶺)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묵단강시를 거쳐 하얼빈시의 이란현 부근에서 송화강과 합류한다.

변경도시 도문(투먼)에서 출발한 기차가 왕청(汪淸)을 지나 노송령을 넘으면 넓은 평야 지대가 나온다. 넓은 평야는 묵단강 유역으로 과거 발해의 중심 무대였다. 여름에는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진다는데 하늘땅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얀 눈밭이 펼쳐졌다.

묵단강을 건너가면 철령하(鐵嶺河)가 나온다. 일제가 독립투사들을 잡아 가두었던 감옥이 있던 마을로 백야 장군 휘하에 있던 김기철 선생도 갇혀 있었다고 한다. 쫓겨 얼어붙은 비극의 강 위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작은 인형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 시가지를 배경으로 세워진 ‘팔녀투강’ 석조물.



쫓겨 얼어붙은 묵단강. 주변은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묵단강 시가지

만주기행 나흘 만에 빈강공원에서 햇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불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어찌나 추운지 안내자의 설명을 수첩에 메모할 수가 없었다. 손이 얼어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안내자 설명에 따르면 지금은 겨울이어서 공원에 사람이 없지만, 여름에는 저녁을 먹고 나오면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온 조선족 어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안내자는 그동안 네 할머니를 만났다면 그 중 한 분의 사연을 소개했다.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가. 요즘엔 옛날 생시처럼 묵단강이 보여. 내 평생에 딱 한 번 남자 등에 업혀 봤는데, 거기가 묵단강변이야. 결혼하고 두어 달쯤 되었나, 남편이 그날 냉면도 사줬어...”

묵단강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 추억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하나같이 처녀 때 아름다운 추억 보따리를 풀어놓는다고 한다. 꽃다운 여전사들이 동료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던 비극의 강이 남편과 데이트를 즐겼던 애뜻한 추억의 강이 되었다니 격세지감을 느꼈다.

안내자의 흥미 넘치는 설명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추위도 가셨다. 시계는 오전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곧바로 버스에 올라 발해 유적지를 돌아보기 위해 ‘동경성’으로 이동했다. 조선족 민속 거리를 들르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빈강공원에서 내려다 본 묵단강 시내





# “지역 발전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토대가 돼야죠”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이민호 운영위원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평범한 가정의 외동으로 자란 이민호는 부모님의 귀여움도 많이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는 가차 없이 매를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속담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듯하다. 제일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그는 상고에 진학했다. 평소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소리샘’사물놀이 동아리 회장을 3년간 맡으면서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국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주대 물류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끼는 어쩔 수 없었던지 교내 풍물동아리를 찾아 들어갔고 타 대학 동아리와 어울려 장단을 맞추는 일도 많았는데 때로 동아리 활동비를 벌기 위해 선배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다니기도 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풍물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는 행사는 주로 농민대회

나 노동자결의출범식, 학생연합 등으로서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런 활동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연스럽게 농민들의 아픔과 원성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시민단체의 힘으로 세상에 알려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등의 분노와 충격은 그를 학생운동에 뛰어 들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학생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참가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시민운동가로 변모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군산의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열심히 파고들며 자료를 축적했다. 3년 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에 가입하여 다양한 직업과 성향,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과의 공론을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한목소리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스스로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더불어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되었다.

꿈 많은 학창 시절, 때론 방황과 일탈도 하는 가운데 대부분 학업, 미팅,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등으로 인생을 설계할 때 이민호(35)가 마주한 것은 불평등과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이었다. 일찍 철이 들어서였을까, 세상이 이러한데 혼자서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건 의미도 없고 헛된 일이라 여겼다. 대학 시절의 학생운동은 시대를 통찰하는 시야를 넓혀주었으며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내적 자아를 탄실하게 한 시간이었다. 그는 세상이 좀 더 정의롭게 변화되기를 바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그가 선택한 길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괜찮은 직장의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노동자와 하청노동자로 일하면서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참담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화 하는 한 글자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다. ‘비’자는 비인간적 대우와 비전함을 함축하고 있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큰 차별을 둔 근로조건이나 임금은 모멸감마저 안겨주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이런 모순과 부당함에 울화를 느끼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굳건했다. 그 역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었던 터라 노동법을 공부하며 비정규직 철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가 공부한 노동법은 실제 노동 현장과는 괴리가 컸다. ‘갑’의 지위인 사업주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하거나 편법을 써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을’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스스로도 체념에 젖은 경우가 많았다. 이 부당함을 철폐하지 않고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기에 울분의 목소리도 내보았지만 그러나 혼자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중의 힘이 응집되는 참여자치시민연대에 가입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가 시민운동을 하며 느낀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를 바라보고 통찰함으로써 가지는 식견과 이념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터여서 때로 서로 간에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끈기 있게 설득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내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공정한 룰 속에서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라는 것을 외쳤다. 민주주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4.19때도, 5.18때도, 6월 항쟁 때도 그 중심엔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걸음은 너무도 더디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때론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 청년들이 무력하면 사회나 국가의 미래 또한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르면 당장 우리 지역의 현안만 보더라도 백가쟁명 식의 이런저런 발전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를 통해 주민협회의 회가 운영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군산의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을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특히 청년층이 앞장서 대안을 찾고 힘을 모은다면 군산 예산 1조가 넘는 상황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의 일 자리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것들은 관 위주의 정책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합의 과정을 통해 시행돼야 할 것이며 형세 낭비 요인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뒤따라야 될 일이다.

#### 약력

신풍초, 제일중, 군산상고 졸  
전주대 물류통상학과 졸  
전주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중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정의당 전북도당 청년대의원  
정의당 군산시 지역위원회 민생정책국장





# 구시청사부지 활용과 군산초등학교 활용방안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ASPECT 청소년기자단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매입에 거액을 들인 구 군산시청 부지(이하 구시청)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3월에 군산초등학교(이하 군산초)가 이전하며 남게 되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민관이 논의 중입니다. 군산초가 구시청과 같이 방치되지 않게 하고자 배형원 군산시의원님과 이진우 매거진군산 발인인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구)군산시청부지는 광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전후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의결이 부결되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배형원 : 당초 군산시장은 구)시청사부지를 복원하거나 근대풍의 건물로 짓겠다는 뜻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소진하지 못한 예산 11억을 사용해야 하는데, 복원하는 데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과 최소 2-3년 이상의 기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11억원은 부득이 중앙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군산시가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차후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자 편법으로 구)시청사부지를 광장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는데 11억원을 소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배형원)은 광장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군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째는 중앙정부의 지원기간이 4년으로 충분한 기간이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조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본래의 매입취지를 잃고, 왜곡되게 처리한다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광장부지로 조성했다가 차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 때 다시 본래의 매입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책임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반대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광장부지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한 후 남게 되는 [군산초등학교] 부지는 아직 활용방안 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배형원 : 본 의원은 군산초등학교 이전(본 의원은, 군산초등학교가 말로는 이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폐교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반대의견입니다. 이전하려면 차라리 서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군산초등학교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존치의견보다 폐교하자는 의견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산시의 의도가 전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현재로서는 군산초등학교의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대안이 있어야 하겠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문동신 시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동태문 도시재생과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등과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은 군산초등학교 이전 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칫 폐교된 학교의 방치 등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이전이 약 2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여 이전과 동시에 군산시와 도교육청이 합의하여 계획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 군산시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1) 군산초등학교가 3,000평이 넘는데(3,717평 정도), 운동장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그렇게 하면 100여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보기 때문임), 다시 운



동장을 조성하여 광장부지로 하여 녹지공간, 공원장, 운동시설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차량통로는 1개로 하되,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인근 영동, 중앙로, 장미동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대해볼만 합니다.

2) 학교건물은 절대로 철거해서는 안 되며, 이 건물에 평생교육시설로의 활용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가능하면 유스호스텔, 그리고 학교역사 및 교육사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북도 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소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습니다.

3) 구)군산시청사와 군산초등학교의 높이 차이가 약 2미터 정도 되므로, 구)군산시청사를 복원하게 될 경우 경관육교를 가설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 경우 군산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이성당 4거리로 극심한 교통난과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국산초등학교 앞 기존 중앙로 상가 뒤쪽은(군산초등학교 정문 안쪽을) 약 10미터 정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한전주 및 통신주의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도로를 정비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여 이곳을 거리축제의 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산시와 교육청(도교육청 및 군산시교육지원청)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문동신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산교육지원청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얻었고, 군산시가(도

시재생과)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우** : 군산초등학교 부지는 근대역사지구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2천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유의 땅이죠. 이런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특히 미래의 군산관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런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고속버스터미널(직행버스제외)을 민자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백대교(군장대교)가 개통이 되면 고속버스가 그 다리를 이용할 확률이 큼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속도로 톨비용과 거리를 단축시킨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리를 건너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군산초등학교가 최적의 위치겠지요. 민자유치도 지금의 관광객 증가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지확보가 쉽습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은 금호홀딩스에서 운영하는데, 낙후된 시설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육청 소유의 부지라면 조금은 쉽게 시와 협의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승객의 상당수는 관광객입니다. 익산버스 승객의 두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입장에서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바로 관광지를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대중서비스는 다른 도시에서는 못만 날것입니다.

구시청 부지를 활용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형원** : 3층 건물로 미술관 등 문화예술과 접목된 공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그리고 먹거리공간의 유치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책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이진우** : 최근 구시청부지에 있는 철골구조물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의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선, 광장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겠습니다. 구시청이 있는 지역에서 지척에 위치한 역사박물관 쪽으로 눈을 돌리면 널리고 널린 게 광장부지입니다. 그런데 왜 광장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철골구조물 건물이 지금은 비록 역사적 가치나, 지역의 특성을 담지 못한 건물일지언정, 이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건물을 지금 특별한 용도를 찾지 못해 부숴버린다는 건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그곳을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해야하는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간, 우리 군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지요.

첫 번째로 저는 지금 그 철골구조물의 형태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청년몰+장년몰]을 제안합니다. 청년취업문제도 해결하면서, 아울러 시니어 시티즌들의 스토리텔링을 겸비한 단일품목판매를 위주로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어울어진 매장들을 만들면 관광효과도 크게 기대해 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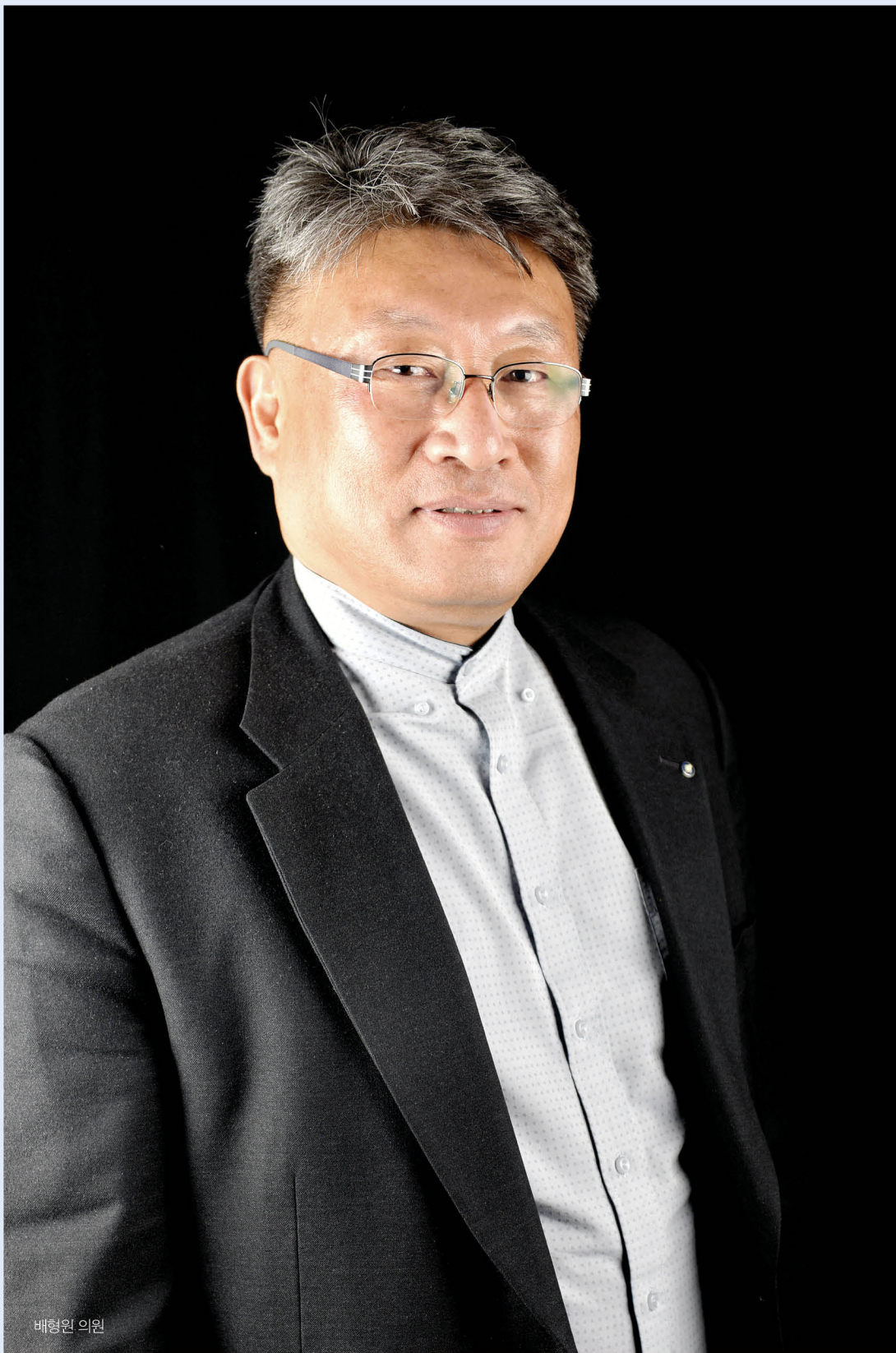
또 다른 아이디어로 [야구사박물관]도 제안해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인 야구를 테마로 한 박물관으로, 우리 군산은 군산상고, 해태 타이거즈, 쌍방울 레이더스 등 야구 명문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야구사박물관을 만들고 이를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힘들면 그냥 시청의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라도 이전시켜서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지요. 왜 활용도를 못찾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합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시의 의견수용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배형원** : 군산시민의 의견수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를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의도된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등)은 요식행위로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공적이지도 않다.

**이진우** :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이 오지 않았겠지요? 물론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시민감시단이나 시민제안창구를 따로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중요한건 리더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 시민들





배형원 의원

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가 판가를 납니다. 지금의 군산시 소통에 관한 제 점수는요, 3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배형원** : 대체적으로 문화, 예술, 복지(요양원, 재활원 등), 대안학교 등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체험과 친환경사업, 역사, 관광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확장성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군산의 경우에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치된 폐교가 있습니다.

**전 군산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과 내부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나요?**

**배형원** : 관 주도형으로 도 교육청이 폐교 내지는 이전의 정당성에 대하여 월명동사무소에서 토론회를 한 경우가 있고, 군산초등학교 동문회의 의견수렴과정 및 지역주민여론조사 등을 하였으나 그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하여는 매우 허술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군산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배형원** :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정책 중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관광산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군산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적이면서 문화예술과 접목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잘 융합될 때 군산시의 관광산업은 활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의 사항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 군산의 관광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월명동, 영화동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광]이며(이 안에는 영화촬영지 등의 [콘텐츠관광]도 포함되겠지요), 두 번째는 고군산군도, 금강하구둑, 철새조망대, 오성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이고, 마지막으로 짬뽕, 빵, 호떡, 생선탕, 계장 등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맛집관광]입니다. 이들을 잘 인지하고 시에서는 각각에 다른 정책을 적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간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유도하는가가 중요하지요.

월명동을 예를 들자면, 이성당 부근의 교통혼잡, 좁은 골목의 불법주차 등으로 관광객에 대한 시의 태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일방통행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강제로라도 시행했어야지요. 시가 아직도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리다 관광객 몇 분이 사고라도 당하시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진행할거라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직도 시는 모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군산 최초의 스페인 풍 레스토랑

최근 군산에서도 정통 스페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은파의 언덕바지에 위치한 푸드 단지 앤츠밸리(Ant's Valley)의 '몬주익(Montjuic)213'이 바로 그곳. 홈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한 이곳의 백윤정 대표는 19년 전 익산에서 '뜰에빛'을 창업, 여러 곳에 가맹점을 내줄 정도로 공간연출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커리어 우먼으로 작년에 현 위치의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2층 건물을 신축, 1층은 공간연출 전시 및 판매장인 '뜰에빛', 2층에 '몬주익213'레스토랑을 오픈했다.

백 대표가 스페인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도 스페인 여행을 하던 중 그곳 음식에 반해서이다. 평소 여행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힐링을 얻는 가운데 삶의 의미와 의지를 되살린다는 그녀는 유럽 여러 나라도 다녀왔지만 왠지 스페인의 음식은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나무숲이며 아름답기 그지없는 알함브라 궁전도 인상적이었지만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몬주익 언덕은 우리 한국인에게 각별한 의미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한데,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가 세계를 제패, 몬주익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에서도 백 대표에게 스페인은 각별한 의미와 함께 추억을 새롭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은파호수 언덕의  
스페니쉬(Spanish)  
레스토랑

몬주익 213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 몬주익213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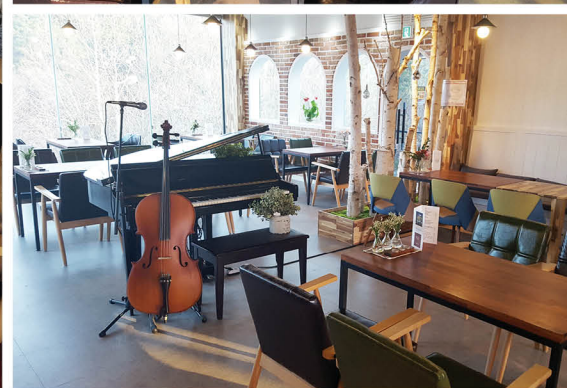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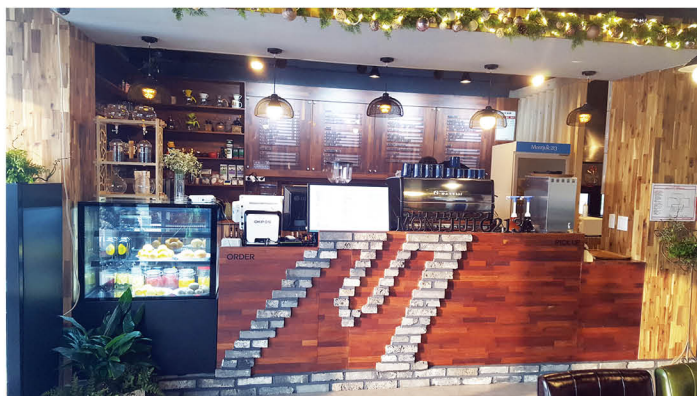
백 대표가 스페인 요리점을 내게 된 것도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활에서도 우리 정서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양식도 스페인 풍으로 꾸몄고 상호를 고민하다가 자신의 건물이 은파 언덕에 위치한다는 것에서 착안, ‘몬주익’으로 했는데 상호에 213이라는 숫자를 덧붙인 것은 실제로 몬주익 언덕의 높이가 해발 213미터인데다가 무슨 우연인지 황영조 선수가 우승할 당시의 기록이 2시간13분으로서 213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운명적인 신기함이 느껴져서이다. 셰프는 1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정통파로 서울에서 초빙했다.

군산에는 최초인 스페인 요리점인지라 개업을 앞두고 주변의 반신반의도 있었지만 백 대표의 예상과 확신은 점차 맞아들고 있는 추세다.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앤츠밸리 푸드 단지는 멋진 경관에도 불구하고 조성 초기부터 오랜 기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이곳을 택한 이유는 백 대표 남편의 남다른 안목과 구상 때문이었다.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 남편은 “현재는 비록 침체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멋진 경치와 개성 있는 건물들, 그리고 넉넉한 주차 공간 등이 갖춰진 만큼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며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말로 의욕을 불태우며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는데 그러한 남편의 말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는 말도 들려준다. 그래서인지 최근 앤츠밸리는 운치 있는 식당과 카페, 공예점 등의 입주가 늘면서 소생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 이 추세라면 머잖아 군산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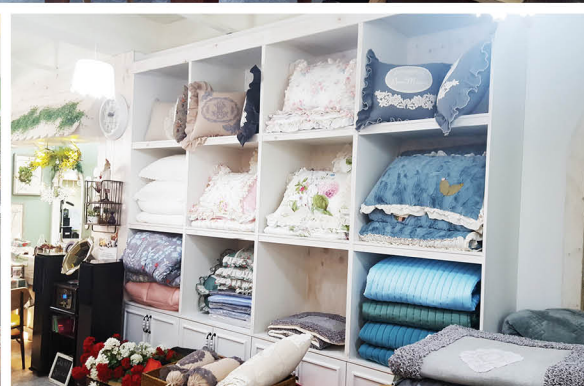
‘몬주익213’의 주 메뉴는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까지 다양한 커피 류는 기본이고 라떼 류, 프라페 류를 비롯하여 수많은 차 종류와 생과일주스, 케익, 크루아상&마들렌, 머핀젤라또, 와플젤라또, 토띠아, 스윗버터브레드 등에서부터 종류별 와인과 양주, 스페인 식 안주류, 그리고 식사류로는 이베리코 목등심, 빠에야, 감바스 알 아히오, 타파스, 몬주익 샐러드, 하몽 세라노, 모듬치즈를 비롯하여 코스별 요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100여 종에 이르며 가격도 착하게 책정되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다. 또한 이색적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가운데 여유롭고 멋스런 내부 중앙에 자리한 피아노와 첼로도 한껏 격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 이윤보다는 고객만족

백 대표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철학이 있다. 이윤만을 쫓기 보다는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담아주는 업소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편의 뜻이기도 하다. 고객이 지불하는 차값, 식사비 이상의 감동을 줌으로써 고객의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 말하는 백 대표는 따라서 식재료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과일, 채소, 육류 등은 최상품으로서 반드시 무첨가물이어야 되고 100% 생과일만 고집하는 것도 다른 것에 앞서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한 진심이 통해서일까, 특히 주말엔 군산 주민 외에도 버스 투어 중인 외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얼마 전에도 60~70대로 보이는 16명의 단체 관광객이 식사를 하고 난 뒤 입맛에 맞고 너무 맛있었다면서 업주인 백 대표에게까지 팁을 주고 가더라는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들 부부에게 앤츠밸리의 활성화가 단지 시간문제로 보이는 것도 기대 이상으로 고객들의 만족해하는 모습에 고무돼서다.







## 공간연출 '플에빛'

건물 1층은 홈스타일리스트이자 공간연출 전공자인 백 대표의 인테리어 아이템 전시 및 판매 공간이다. 이미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는 그녀에 의하면 벽과 도배, 커튼, 탁자와 의자, 전등, 화분과 화병, 시계 등도 어떤 모양과 색깔로 꾸미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와 품위가 달라진다면 서 그러다보니 개업을 앞둔 병원이나 고급 커피숍, 요식업소 외에 일반가정에서도 출장 요청이 들어온다 한다. 실제로 전 시장에 들어서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다. 의류와 침구, 탁자와 의자, 신발, 모자, 도자기, 이미지테이션 화조와 화분, 화병, 전등, 악세소리와 사소한 소품들까지 디자인과 색상에 있어 하나같이 세련되고 멋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 대표 자신은 정작 옷이 많지 않단다. 그것은 타고난 근검절약이 몸에 배서라는데 그래서 여벌옷이 생기면 대개 목회자 가정 등에 후원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로 인해 누구나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옷이든 1년 정도 입지 않으면 끝내 그 옷은 안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감히 정리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기부할 것은 기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들려준다. 즉 집안을 꾸미는 것 못지않게 자질구레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도 효율적 인테리어의 지혜라는 말 같다. 필자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일단의 여성들이 전시장을 찾아 세세히 둘러보면서 탄성과 함께 맘에 드는 아이템들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사실 모든 제품들은 그리 고가는 아니라는 게 백 대표의 귀띔이다.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제고된 이제는 시민들도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기왕이면 세련되고 멋스런 감각의 것을 선호하는 추세인 만큼 '플에빛'이 그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또 하나의 미(美)의 산실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다.

스페니쉬 레스토랑 문주익213  
공간연출 플에빛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1(애틀밸리 내)  
T. 063)468-7770



## ■ 관광형 2층 시내버스 타고 고군산으로 GO!

군산시, 오는 30일 시범운행 후, 2월 1일 정식운행 개시

군산시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응항~장자도 구간 98번 노선을 신설하고 관광형 2층 시내버스 2대를 투입한다. 정식 운행 이전인 오는 30일 시범운행을 통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홍보하고 운행노선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설된 노선은 2월 1일 06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1시간 간격으로 20시 30분까지 운행되며, 탑승요금은 기존 군산시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다. 고군산군도에 투입되는 2층 시내버스는 전라북도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1층 12석, 2층 59석, 휠체어 대기 공간(접이식 좌석 27개) 등 73석이며, 초저상버스로 휠체어 경사판 등이 구비되어 있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고군산투어의 영문 네이밍(GOgunsanTour)과 서해안 지역에 서식중인 멸종위기종 '상괘이'를 캐릭터화해서 랩핑 완료했으며, 특색 있는 외부 디자인으로 지역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층 시내버스 도입이 고군산군도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일반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 운행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문동신 군산시장,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문시장 마지막 읍면동 신년인사회 '뜨거운 호응' 속 성료!

문동신 시장이 새해 시민과의 소통행보인 2018년 읍면동 신년인사회를 통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인사회는 각 읍면동의 특색에 맞춰 주민자치센터 또는 관내 어린이 등 시민들이 직접 연출한 식전공연으로 시작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주요현안과 지역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의 알기 쉬운 현장설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문시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시간을 마련했고, 시민과의 공감대화를 통해 덕담과 감사, 그리고 지역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문시장은 지난 한해 경기침체라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관심과 열정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소개하여 다시 도약하는 군산시의 저력을 강조하였다. 군산시는 작년 2018년도 국가예산 1조 103억원 확보로 3년 연속 1조원 달성! 관광객 방문 360만명 돌파! 어린이 안전 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7 한국관광의 별 문화관광자원 부문 수상, 지방자치경연대상 국제문화관광비전도시부문 수상 등 총 39건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함께 전북유일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2개 대상지 선정!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및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등 국제 및 전국단위 개최로 국제도시 위상 정립!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전면개통! 등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이 이뤄졌다. 문동신 시장은 작년 성과와 함께 시민들에게 2018년 새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군산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추세에도 1조 103억원을 확보하여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근대항만역사관건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의미 있는 신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으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문제도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2~3개월 후면 가시적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군산지역 조선산업지원 대책점검 등을 통해 선수금환급 보증발급한도 추가 70억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대책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동신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백대교, 세계최초 5개 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관광수요창출을 통한 관광광역화를 추진하며, 어린이 권리확산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린이 행복도시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신년인사회 참석한 시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좋았고, 진심어린 신년인사를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했다며 긍정적인 호응을 보였다. 문동신 시장은 "술한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서고야마는 독심을 가진 역전의 명수인 군산시민의 힘이 군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시킬 것이며, 남은 임기 동안 주요현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마무리 인사말을 보냈다. 한편 문시장의 임기내 마지막이 될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난 1월 18일 월명동을 시작으로 29일 옥서면을 끝으로 총7일간 27개 읍면동을 방문해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군산을 위한 힘찬 출발!

군산시, 일자리 전담지원 '일자리담당관' 신설 배치

군산시는 지난 15일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도내 처음으로 시장 직속의 일자리담당관을 신설 배치하였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R&D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신설된 일자리담당관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구직자와 기업체의 최적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며, 청사 내 일자리 정보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기업자와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 지원사업과 근로자 자선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 구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근로자 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내설 있게 관리하고, 노사협력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등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 줄 재정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익석 일자리담당관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라는 마음으로 고용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I can dream!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17회 어르신예술제 및 위풍당당 페스티벌 성료

군산시는 지난 25일 예술의전당에서 제17회 어르신예술제 및 위풍당당 페스티벌을 열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는 난타, 가요, 기타 등 어르신들의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2부 위풍당당 페스티벌 'I can dream!'에서는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꿈을 회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제1전시실에는 서예, 서화, 한글편지 등 총 70여 점의 어르신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한편, 행사를 진행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0년 개관 이래 하루 1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성장하여, 노인 복지 향상 및 어르신들의 재능 개발에 앞장서 왔다.



## ■ 영화촬영지 군산·초원사진관·관광객 쇄도

군산에서 꼭 들러야 할 관광명소로 손꼽혀

군산시 시간여행마을에 위치한 초원사진관이 많은 관광객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초원사진관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제작진이 마땅한 촬영지를 물색하기 위해 전국의 사진관을 찾아다니다 겨우 발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으며, 내부에는 촬영 당시 사용된 사진기와 선풍기 등 소품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영화 팬들의 추억을 자극한다. 또한 인근의 근대역사박물관과 동국사, 히로쓰 가옥 등 근대문화유산 특유의 정취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군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 때문에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초원사진관을 찾은 관광객은 외국인 5,005명을 포함한 438,592명으로 작년 대비 23% 상승하였으며, 군산시 전체 관광객의 11%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에도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에 대비하여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사진관 인근 쉼터와 그늘 대폭 확충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야간경관 조명등의 관광콘텐츠 개발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 ■ 군산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무료의치(틀니)보철사업' 실시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의치(틀니)보철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의치가 절실히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 된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읍면동 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신 어르신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구강검진 및 상담을 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시술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료 노인 의치보철사업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07년부터 1,338명에 무료 의치를 보급하였고, 시술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서사시로 쓰는 동화>

# 하늘중 바다중

웅이와 종이는  
대왕바위 마을 바닷가 언덕 오두막에서  
속 정이 깊은 옥쟁이 할매와  
옛질이 아빠랑 함께 산다네.  
대왕바위 깊은 바다 용궁 선녀가 되었다는  
엄마를 그리며 산다네.

“땡 때엥 땡 때엥 땡때엥”

와르르 아이들이 교실로 밀려들어옵니다.  
머리가 마치 가시 돋친 성계 겹질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꿈이도,  
고무줄을 질질 끌며 들어오는 자야도  
얼굴이 온통 모래투성이입니다.

“우리들은 일학년 어서어서 배우자,  
구경하는 참새들아 같이 배우자야”

## X-3. 종치는 선생님

오늘도 웅이는  
교실 유리창 문턱에 올라 앉아  
바로 옆 교무실 창 밖에 걸려 있는 종을 쳐다봅니다.  
손을 뻗으면 곧 손에 잡힐 듯한 나뭇가지에 종은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하고 슬며시 팔을 뻗치다가 얼른 오므려버립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꾸만 종을 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슬며시 팔을 뻗쳐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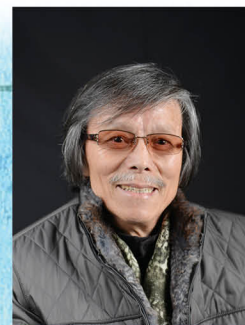
“김웅이! 어디에 올라앉았어!”

웅이의 어깨가 움찔하면서 팔이 오므라듭니다.  
선생님이 종 방울에 대롱대롱 매달린 줄을 잡고  
볼을 팽퐁이 배처럼 불룩하게 하시고는 커다란 눈으로 웅이를 쳐다봅니다.  
그렇지만 웅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오른 선생님의 빠알간 입가에 숨겨진 웃음기를 읽으며  
웅이도 빙그레 웃어버립니다.

선생님은 풍금을 치다가 일어서서 손뼉을 칩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머리를 끄덕일 때마다 어깨위에 출렁이는 선생님의 긴 머리를 말끄러미 쳐다보느라  
웅이는 손뼉 치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도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와 맨 날 우리 선생님이 종을 치노?  
그래, 그럴까라.  
우리 선생님이 젤 이쁜잉께네 그럴 까라.’

다음호 X-4에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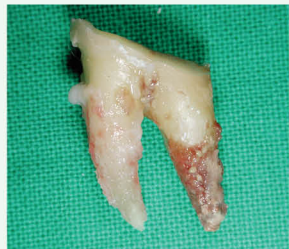


여울 김준기



## 복잡한 문제의 해결은 복잡한 만큼 어렵습니다.

치주질환, 잇몸병은 잇몸 자체 즉 물렁거리는 잇몸 '살'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잇몸 자체의 염증은 스케링과 정성들인 칫솔질만으로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지요. 대부분의 치주질환에서 치료의 목표는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는 쪽으로 잡게 됩니다. 물론 잇몸뼈가 파괴되어 없어진 부위에 인공뼈와 다양한 뼈 재생 물질을 넣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100% 치조골이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인공뼈 이식을 하고, 치주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주수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증이 상당히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분들은 매우 괴로운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힘든 과정을 견뎌나고 해도 결과는 우리가 희망하는 목표의 50%를 달성해도 만족해야만 합니다.



심한 치주질환의 경우, 2 가지 치료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힘들더라도 최대한 치료하고, 결과가 나쁘면 발치를 결정한다. 2.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고생하기보다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두 가지 치료 중에 치주질환 정도에 따라, 환자분의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상태가 복잡하고 잇몸뼈가 많이 파괴되어 있을수록 열심히 치료한다 해도 나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빠서 발치를 하게 된 경우, 복잡하고 힘든 치료를 받느라고 고생하신 환자분도 아쉬움이 많겠지만, 하나의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치료한 치과의사도 아쉬움이 크다는 것 역시 알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발치할 거, 진작에 빼주시지 시간낭비 돈낭비가 되었네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현재 치아 상태, 앞으로 해야

할 치료, 예상되는 치료결과 등을 치과의사는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설명을 잘 듣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여건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겠지요.

사진에서 보이는 어금니는 하악 대구치입니다. 치아 머리는 하나고, 뿌리가 두 개입니다. 한 쪽 뿌리에만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어금니가 많이 흔들리고, 찬물에 시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발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발치를 권유했지만, 환자분은 상태가 많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발치를 최대한 늦추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치료를 하더라도 몇 년 못 가서 발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환자분은 치료 과정과 결과에 동의하셔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경치료를 하고, 잇몸치료를 하고, 경과에 따라 보조적인 치료를 중간 중간 진행했습니다. 결국 2년 반 후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 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은 발치를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하였고,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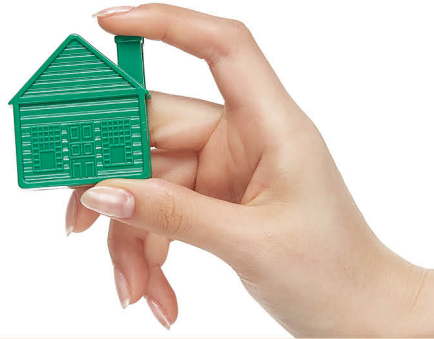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구하든지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시 ①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②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매달 내고 있는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300만원부터 18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도 상환하는 원금과 이

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요건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되는 경우로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③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뿐만아니라 월세로 지출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요건은 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서류인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이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모두 직장인에게만 적용되고, 개인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국민에게 확대적용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주거비로 인한 고통이 직장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 이므로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부동산 시장 동향



금번호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간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의 글을 인용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누구는 5억에 산 부동산이 5년 만에 10억짜리가 됐다고 하는데 누구는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값, 그대로라고 한탄을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누구나 값이 몇 배로 불어주기를 바라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맘대로 되던가요.

값이 쑥쑥 올라가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복이 있다하고, 값이 그대로인 사람은 부동산 복이 없다고 복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나 값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살 때 차후 값이 크게 오르지 못할 부동산을 샀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이 돈을 불러 줍니다.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줄기가 자라나게 되고, 좋지 못한 씨앗에서는 약한 줄기가 뻗어 오름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동산도 살 때 좋은 것이 팔 때도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닐 터, 살 때 너무 싼 것 고르지 말고, 좋은 것을 골라야 하며 큰 나무 밑에서 큰 나무가 자라고, 작은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동산은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음이 옳습니다. 이때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부동산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2-3년 후, 5년 후, 10년 후 팔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프라, 개발호재 등 여러 가치를 놓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어느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입지나 인프라, 개발을 믿는 부동산은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불러주는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되건 논이 되건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하십시오. 앞으로 부동산투자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환율이 폭락 떨어지면서 돈이 흔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땐 투자기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1. 10년 이상 장기투자일 때는 단가가 싼 것을 사야 합니다. 땅을 살 때는 평당 단가가 낮은 것을 사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땅을 평당 30만 원대를 사서(싼값에 사야 한다는 개념으로) 긴 세월을 보도록 하면 지금 3억짜리가 10년 후 20억이나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6-7년 중장기일 때는 개발호재를 맞추어 중간가격으로 사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토지를 살 때는 개발호재가 끝날 무렵에서 2-3년 더 세월을 붙여 매입가격의 2배내지 3배에서 팔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억이나 6억 투자해서 10억이나 15억 선에 처분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3. 2-3년 단기투자일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값을 높게 사셔도 됩니다. 부동산투자는 대개 단기투자에서 종종 실패를 합니다. 2-3년 만에 얼른 큰돈을 벌려고 빚내서 투자했는데 본전이나 원래 가격 이하로 팔게 된다면 이자와 경비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달 그믐날 결혼한 사람이 정월 초하룻날 왜 임신소식이 없느냐고 안달하지 마시라

는 것입니다. 단기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 다시 단기투자를 했다가 연이어 실패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본전이 도망가서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권에 생사를 거는 사람이 많은데(수도권) 지금까지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중 팔구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싼 값으로 취득한 장기투자도 중간에 다 빠져 나가면 나중에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 내 것만 남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지역 특성에 맞춰 건물을 짓거나 기타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투자를 할 때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기에 조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을 권유한 필자와 같은 사람도 투자자의 입장처럼 애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과 판단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을 믿었는데도 그게 실패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 세상에는 믿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해를 멋있게 출발하였으면 합니다.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 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 #ME TOO 미투!

미투(#Me Too) 캠페인은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급 영화제작자인 하비 웨스타인의 성추문 폭로 사건을 계기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언론, 정치계에 확산된 성폭력 고발운동이다. “Me Too” - “나도 그렇다”는 의미에 해시태그를 달아 (#Me Too) SNS에 자신의 성폭력피해를 고백해서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최근 서지현 검사는 본인이 검사이지만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사과도 받지 못한 9년 전의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였고 JTBC에 출연하여 인터뷰 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남성위주의 문화와 조직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여성과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조차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 조사와 구제마저 어려운 상황이니 일반여성의 성폭력 피해와 구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삼성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내 구조본부의 각 종 전횡과 로비를 폭로한 내부고발 사건, 국가정보원 정모씨의 대선개입 여론조작의혹 사건의 내부고발, 김영수 해군 보급소령 국방부 계통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제보 내부고발, 라면회사들의 가격담합을 자진 신고한 삼양식품 등 수 많은 내부고발사건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어둠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은 감사부서에 고발할 때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이어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만일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조직의 상관이나 동료들에게 받는 비난과 하극상 풍토를 배격하는 자세로 인해 상당히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자살충동을 많이 느낄 만큼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내부고발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고함에서부터, 업무성과와 관련 없이 사직, 사퇴의 종용과 다른지역으로 전출, 한직으로 인사이동, 비밀유출의 이유로 징계를 처하는 등 다양한 보복조치가 기다리고 있으니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지현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동료들은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고 (그것이 신변상의 불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습관화된 무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항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잘 나가는 남자 검사 잡는 꽃뱀”이라는 뒷말에 시달리면서 2차 폭력에 시달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8년을 버텼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스스로 자정되어가는 맑은 물이 될 줄 알았는데 물은 이미 스스로 정화능력을 상실해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 연간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10만 건 그 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3만 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서 검사 인터뷰 끝자락에 남긴 말을 우리에게 잔잔한 파도가 되어 되뇌이게 한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 땅에 부당 불평한 사건이 지속되지 않고 진정 사람 사는 평화로운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기까지 ‘호루라기 불기(Whistle-blowing)’는 계속되어야 한다.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서화, 군산에서 꽃 피우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기 서화가 황씨 형제展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2017년 마지막 기획전으로 '근대기 서화가 황씨 형제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21일부터 문을 여는 이번 전시는 근대서화계를 대표하는 황씨 형제의 군산에서 활동과 작품세계를 조명하여,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의 또 다른 일면으로 다양한 근대예술의 산실과도 같았던 군산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공간은 본 전시인 '근대기 서화가 황씨 형제展'과 체험공간인 '황씨 형제의 화실' 두 곳으로 구성하였다. 본 전시는 총 5부로 진행되는데, 근대예술문화가 꽃 피웠던 군산과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펼칠 장소로 군산을 선택한 황씨 형제의 다양한 활동을 60여점의 작품 및 자료들로 선보인다. 특히 일반 서화전시와는 다르게 당시 사진 및 신문자료, 일성록 등의 전시유물을 통하여 황씨 형제의 활동 상황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주 전시장의 구성을 보면, 1부 '나를 알아줄 곳으로'에서는 당시 지도와 신문기사, 황씨 형제전시회가 개최된 건물 사진자료를 통하여 근대문화가 꽃피웠던 군산의 모습과 개성에서 군산을 선택한 황씨 형제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부 '봄이 아닌 손끝으로'에서는 지두화指頭畵의 대가였던 둘째 우형 황성하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3부는 '화폭 속으로 들어간 호랑이'이라는 주제로 일명 황호랑이라 불리었던 만형 황종하의 작품을 조명하여 호랑이 그림으로 대표되는 근대기 서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4부 '자유로운 붓놀림을 따라'에서는 막내 미산 황용하의 작품을 사군자로 함께 보여주며, 5부 '봄으로 하나 된 형제들'에서는 각자의 화풍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던 황씨 형제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전시장 도입공간에 배치된 '황씨 형제의 화실'은 전시와 연계된 체험공간으로 기획되었다. 호랑이도, 산수도, 인삼도 등 다양한 황씨 형제의 작품을 체험으로 접할 수 있으며, 황씨 형제의 인장(도장), 황씨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등 각종 연계활동이 함께 마련되어 우리 서화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인천송암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등 많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며 "황씨 형제의 활동과 작품을 통해 근대서화문화가 꽃피웠던 군산화단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금년 한해 「근대 수산전」, 「여성독립운동가전」 등 4회의 기획전과 「여인의 꽃에서 수탈의 꽃으로」 묵화특별전 등 20여회의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 한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의 가치로움을 발견하는 휴먼웨어 공간

2018년 '군산시민예술촌'을 설계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지자체의 군산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민예술촌이 4년차 운영에 들어서며 '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창작소로서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운영될 사업은 공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사업, 문화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사업으로 문화도시재생사업, 창의예술인재육성(BM발굴)·생활 속 문화예술의 가치로움을 발견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세대간·지역간, 더불어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고민으로 문화도시 고리사업 4개의 분야로 진행된다.

문화예술공간사업은 수탁단체인 진포문화예술원의 강점을 살린 기획공연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가 있는 날 개봉명화극장, 예술인창작공간운영으로 군산 지역의 스토리 발굴사업추진과 자율적·자발적·자생성으로 모인 문화놀이터가 회원제로 운영된다.

군산시민예술촌과 근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소재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문화기획자, 청년상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예술인이나 예술강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기량을 지역민과 공유하며 문화예술로 삶의 가치로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연초(2월경)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예술인(강사)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동참하여 참여자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세대간·지역간·도시간 문화다양성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문화도시고리사업은 문화영향평가와 전국 문화도시 포럼(하반기)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문화도시포럼은 군산문화도시 특성화사업 개발로 예술, 근대문화등을 주제로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함에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와 융합하고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확산하는 프로젝트 개발 및 군산문화도시 비전제시를 위해 진행될 계획이다.

2018년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의 가치로움을 발견하는 휴먼웨어 공간을 만들어 가자는 비전아래 부수적인 영역에서의 문화가 아닌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2018년이 되고자 한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 ‘꿈을 꾸며 바다로 갑니다’

청소년운동 후원을 위한 청소년희망이야기 성료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이 군산지역에 문을 연지 3년 가까이 됩니다. 2015년 2월 중 활동가들이 모였고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후원자 한분이 5천만원을 보내 주셔서 월세로 사무실과 활동 공간을 얻었습니다. 10여명의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청소년전문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 분들이 십시일반 도움 주셔서 2천여 만원을 모아서 달그락의 탁자, 쇼파 등 내부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18일 드디어 청소년자치연구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들은 180명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전문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회참여, 진로지원, 실천연구위원회 등 총 4개 54명의 성인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청년들과 주부들을 중심으로 자원 활동가 두 개가 조직 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금을 위해 기록한 부담을 지자는 TF인 거담TF 17명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자는 1월 기준 387명이 되었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략 700명 내외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청소년희망이야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3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리 안의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 제 안에서

가장 감사하고 감동하는 일들은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이웃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과 활동을 성과라고 내 보일 수 있지만 저희의 가장 큰 성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자기성찰에 따른 개인과 지역의 변화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뜻과 이상을 이루는 과정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금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비전과 뜻과 이상을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희망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함께 한 청소년들과 이웃들이 많습니다. 추진위 구성되어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사업을 총괄한 추진위원회, 영상TF, 홍보TF, 100인 합창단 TF 등.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이고 청소년들과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고민하는 시민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청소년희망이야기에 일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며 감동하고 감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치하는 삶은 저희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뿌리로 두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친화적인 사회. 이를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불씨이고 희망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죽기 전까지 꿈꾸는 사회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 그 어떤 이상향의 바다로 가고 있는 이 강줄기에 희망을 켜는 여행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 달그락 달그락

##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mailto: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http://www.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GUNSAN CALENDAR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제2회 청소년 희망 이야기<br>이영춘 박사 추모 음악회<br>군산예술의전당<br>모던실내악 창단 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GS코랄 창단연주회<br>군산예술의전당        | 카르포스 제5회 정기 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새라새 윈드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 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주대학교 오케스트라 K-Classic의 밤 정기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어린이뮤지컬 브레멘 음악대<br>군산예술의전당 | 산돌학교 사랑의 음악회<br>군산예술의전당 | 어린이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br>제5회 러블리 발레단 정기공연<br>군산예술의전당<br>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8 - 전주<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어린이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br>군산예술의전당<br>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8 - 전주<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                              |                                                                                     |
|                                                                       |                                             |                           |                         |                                                                                           | 전북초등교원스트링 오케스트라<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뮤지컬 김종욱찾기 세상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청소년의 음악회<br>군산예술의전당<br>'윤종신 좋니?' 전국 투어콘서트 - 전주<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앤서니 브라운 - 체험뮤지컬 '신비한 놀이터'<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주시립국악단 제 213회 정기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                                                                                     |



|                                              |                                     |
|----------------------------------------------|-------------------------------------|
|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
| 열린터어린이집 작품전시회<br>2018-01-29 ~ 2018-02-02     | AR 트릭아트展<br>2018-01-30 ~ 2018-02-28 |
| 땀손도에 회원전<br>2018-02-22 ~ 2018-02-27          |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br>12.21(목)~02.26(월) 키즈랜드 키즈파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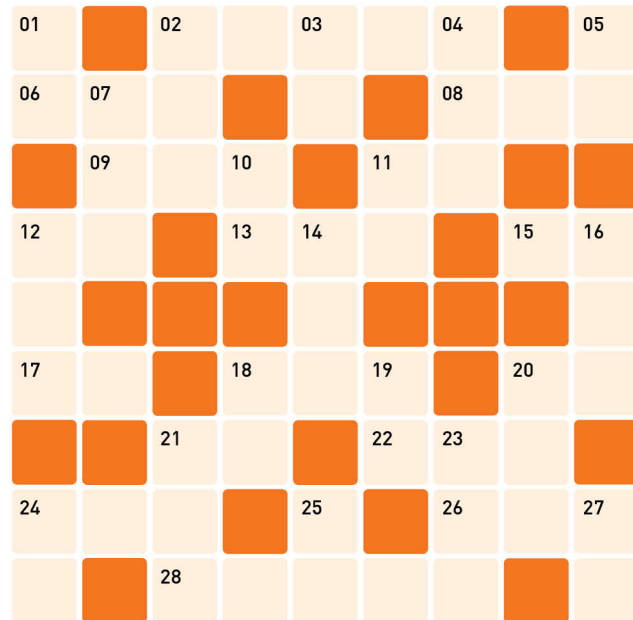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모세스영아원<br>군산시 개정동 413<br>(063) 452-4075        | 구세군군산후생관<br>군산시 신흥동 58-10<br>(063) 445-9331 | 삼성애육원<br>군산시 신창동 7<br>(063) 445-5947            |
| 일맥원<br>군산시 문화동 824-7<br>(063) 462-2385         | 신광모자원<br>군산시 나운동 1242-9<br>(063) 462-7749   | 신광모자자립원<br>군산시 나운동 845-9<br>(063) 461-8572      |
| 구세군군산목양원<br>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br>(063) 466-6088 | 나눔의집<br>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br>(063) 464-9944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br>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br>(063) 466-7981 |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79



<제78호 퍼즐 정답>

|   |   |   |   |   |   |
|---|---|---|---|---|---|
| 생 | 활 | 고 | 원 | 불 | 교 |
| 풍 | 경 | 인 | 증 | 샷 | 시 |
| 운 | 철 | 축 | 운 | 술 |   |
| 아 | 바 | 마 | 마 | 근 | 하 |
| 강 | 애 | 송 | 시 | 룩 |   |
| 이 | 스 | 탄 | 불 | 안 | 전 |
| 상 | 로 | 안 | 대 | 석 |   |
| 향 | 가 | 교 | 습 | 소 | 덜 |
| 수 | 면 | 제 | 망 | 나 | 니 |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 가로 열쇠

- 프로야구 시즌 일정을 모두 끝낸 연말에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 한 명씩을 선정해 주는 상. 글러브 모양의 황금색 트로피가 주어진다.
- 몰래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방송국에서 발신한 음성 전파를 잡아 소리로 바꾸는 기계.
- 기차, 지하철 등의 일정 구간을 일정 기간 왕복할 수 있는 승차권.
-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김.
- 총포에 탄알이나 화약을 재어 넣는 일.
- 소나무 열매의 둥그스름한 송이.
-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
- 설을 맞이하여 새로 차리는 옷·신발 따위.
- 이사한 후에 이웃과 친지를 불러 집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
-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
- 노동자와 사용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 안마.
- 바퀴에 힘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 두레박, 기중기 따위에 쓰임.
-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2013년 데뷔한 뒤 해외에서의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최근 빌보드차트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 그룹. BTS로 지칭되기도 한다.

### ▶ 세로 열쇠

- 임금의 큰 은혜. ㅇㅇ이 망극하옵니다.
-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
-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그윽하게 고이는 모양.
-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승려 계급.
- 낮 열두 시.
- 경복궁 안에 있는 정전(正殿)으로 조선 시대에 임금의 즉위식이나 대례 따위를 거행하던 곳.
-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 불기운이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덮히는 장치. 온돌.
- 얼굴을 잔뜩 찌푸린 모양.
-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기독교에서 교회 직분의 하나.
- 얼굴의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까지의 부분.
-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
- 요금을 지불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
-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들의 무리.
- 남의 말을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
- 천주교 교회 단위의 하나로 신부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작은 교회.
- 남김없이 모조리. 묻는 대로 ㅇㅇ 자백하다.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 앞선 생각으로 진보된 비즈니스를!

군산의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이미 아이씨엠과 함께 있습니다



C.I. (기업 아이덴티티) /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 Package (포장디자인)  
Editorial (편집디자인) / Products (제품디자인) / Photograph (사진)

Add.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Tel. 063-445-1856 Fax. 063-911-1856



세계최초  
3D 증강현실

# 트릭아이뮤지엄 in 군산



2018. 1. 27(토) ~ 2. 28(수) 10:00~17:00

군산예술의전당 2,3 전시실(무료) 매주 월요일 휴관

※ 평일 오전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